

제10회 수원학연구소 학술세미나

## 홍성원의 소설과 문학세계

■ 일 시 : 2013. 11. 13(수) 15시


■ 장 소 : 수원시민회관 대강당

제10회 수원학연구소 학술세미나

## 홍성원의 소설과 문학세계

■ 일 시 : 2013. 11. 13(수) 15시

■ 장 소 : 수원시민회관 대강당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 식 순

### ■ 제1부 개회

15:00 ~ 15:10

- 사회 : 주인군(수원문화원 사무국장)

### ■ 제2부 발표

15:10 ~ 15:20

- 사회 : 최동호(고려대학교 교수)

홍성원 소개

▫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15:20 ~ 15:35

홍성원 영상자료 상영

15:35 ~ 15:50

[제1발표]

1960-70년대 홍성원의 단편소설에 관하여

: 싸움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 김동식(인하대학교 교수)

15:50 ~ 16:00

대금 연주

16:00 ~ 16:10

휴 식

16:10 ~ 16:15

만담

▫ 공효태, 조수진(수원민속예술단 단원)

16:15 ~ 16:30

[제2발표]

홍성원 소설에서의 젊음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 복도훈(문학평론가)

16:30 ~ 16:45

[제3발표]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 형상화 -홍성원의 역사소설 연구

▫ 이승준(한국항공대학교 교수)

16:45 ~ 16:55

성악

▫ 이영숙(상명대학교 교수)

16:55 ~ 15:05

휴 식

### ■ 제3부 토론

- 사회 : 최동호(고려대학교 교수)

17:05 ~ 17:30

토론 및 질의응답

17:30

폐회

## ❧ 목 차 ❧

1. 1960-70년대 홍성원의 단편소설에 관하여  
: 싸움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김동식(인하대학교 교수) ..... 5
  
2. 홍성원 소설에서의 젊음  
-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복도훈(문학평론가) ..... 27
  
3.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 형상화  
- 홍성원의 역사소설 연구  
이승준(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43

1960-70년대 홍성원의 단편소설에 관하여  
: 싸움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김동식(인하대학교 교수)

여 백

# 1960-70년대 홍성원의 단편소설에 관하여 : 싸움의 윤리학을 중심으로1)

김 동 식 (인하대학교 교수)

## 1. 이주, 가난, 그리고 전업작가의 길

나는 항상 전업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늘 모든 감각 상태, 즉 감수성이나 직감, 이성 같은 것을 오픈된 상태로 열어둘 뿐 아니라, 어떤 사물에 부딪히든지 당장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계산 이전에 그 사물의 속내까지 상당히 깊이 알고 싶어합니다.2)

홍성원은 1937년 경남 함천에서 태어났다. 수의사였던 부친을 따라 전국을 옮겨 다니는 이주의 경험이 그의 청년기까지 이어진다. 해방을 맞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강원도 금화와 고성에서 거주했고, 월남해서는 서울, 안양, 수원, 밀양 등지로 떠돌았다. 서울 수복 후 수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농림고등학교에 졸업했다.

1956년 고려대 영문과에 진학한다. 이 해에 부친이 구속되면서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서울로 이사하게 된다. 가정교사로 열 식구를 먹여 살리는 생활전선에 나서게 된다. 1958년 대학을 중퇴하고 독서에 몰입한다. 1961년 「전쟁」이 동아일본 신춘문예에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선정되지만, 병역기피자로 몰려 군에 입대하여 33개월 동안 백골부대에서 군생활을 한다.

1) 이 글은 수원문화원이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홍성원의 소설과 문학세계>를 위해 작성된 발표문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홍성원의 삶과 문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인용이나 사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수원학연구』에 발표될 논문에 근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성원 홍정선, 「대담:자신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러나'라는 질문」, 『홍성원 깊이 읽기』, 홍정선 엮음, 문학과지성사, 1997, 29면.

1964년은 홍성원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다. 제대와 더불어 단편 「빙점지대」가 한국 일본 신춘문예에, 단편 「기관차와 송아지」가 『세대』 일주년 기념문예에, 그리고 장편 『디 데이의 병촌(兵村)』이 동아일보 50만 원 고료 장편 모집에 당선된다. 그 후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업작가로 생활하며, 작품집 『무서운 아이』, 『무사와 악사』, 『주말 여행』, 『투명한 얼굴들』 등과 역사소설 『남과 북』, 『먼동』, 『달과 칼』, 『그러나』 등을 발표한다. 2008년 사망하다.

## 2. '소설 공장'의 의미

비평가인 김병익은 홍성원에게 '소설 공장'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바 있다. 대단히 많은 양의 소설을 썼고, 하지만 그 양에 비할 때 타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연보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홍성원은 끊임없이 글을 발표했다.

그가 왕성한 창작들을 쏟아내던 70년대의 중반쯤에 나는 그를 '소설공장'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 7권 짜리의 『남과 북』, 전 6권의 『먼동』, 전 5권의 『달과 칼』과 낱권의 장편들이 20여 권, 최근에 나온 작품집 『투명한 얼굴들』을 포함한 예닐곱 권의 중단편집집 등 그 규모에 있어 그는 '대형 작가'로서의 면모를 약 여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적(水賊)』과 같은 미완성까지 포함하여 근 45권에 1만 3천 페이지, 원고지로 환산하면 2백자 원고지 5만 장 이상을 쓴 것이고, 그것은 매달 단편 2편을 발표한 양이 되는 셈이 된다.<sup>3)</sup>

김병익의 글이 1990년대 중반에 씌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후에 발표된 장편 『그러나』(2권) 등을 포함하면 작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눈에 띄는 대목은, 40년 가까운 작가 생활 동안 매달 단편 2편을 발표해 온 것에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150매 전후가 단편소설의 일반적인 분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달에 300매, 그러니까 매일 10매씩의 원고를 40년 가까이 써왔다는 것이 된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한결같이 작품을 써온 경우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전업작가로서의 투철한 의식이 동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3. 전쟁소재소설, 중단편소설, 대하역사소설, 연재소설 : 홍성원의 문학 세계의 지형

홍성원의 작품 세계는, 그야말로 자유분방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소설집 『폭군』의 작가 서문에서 홍성원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3) 김병익, 「진실의 발견과 장인 정신」, 위의 책, 68면.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의 것.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작품들을 한 자리에 묶어놓고 보니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게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제각각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잡다한 모양새 때문에 평자(評者)들은 내 작품들에 통일된 질서를 만들어 주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욕을 먹어야 될 나의 잘못일 수는 없다. 무엇이나 쓸 수 있다는 것은 작가들만의 소중한 즐거움이다.”<sup>4)</sup> 이 글에서는 기존의 비평을 종합하여 홍성원 문학의 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성원의 작품 세계는 초기의 군대와 전쟁 문제로부터, 도시적 삶의 고통과 좌절, 조직과 폭력의 문제를 거쳐, 역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방대하다.<sup>5)</sup> 또한 소설 양식에 주목할 때, 초기는 병영소재소설, 중기의 중단편소설, 그리고 후기의 역사대하소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6)</sup> 이와 같은 지형도가 대체적으로는 홍성원의 작품세계와 부합하지만, 여기에 1966년의 장편 『막차로 온 손님』부터 시작되어 1991년의 대하장편 『수적』에 이르는 연재소설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병영소재소설이다. 초기의 병영소재소설은 전쟁과 군대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로서 1961년의 「전쟁」, 1964년의 「빙점지대」, 「기관차와 송아지」, 『디데이의 병촌』 등이 해당한다.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한국전쟁의 체험과, 1961년부터 1964년까지의 군대 경험이 밑바탕이 된 작품들이다. 심리묘사를 줄이고 행동 위주의 묘사를 극대화하려는 실험적인 의도를 보여준 작품들이다. 특히 헤밍웨이를 연상시키는 남성적인 문체, 감상을 최소화하고 행동묘사에 주목한 작품들의 문체는, 홍성원 소설의 문체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sup>7)</sup>

두 번째는 중단편소설이다. 조직과 폭력의 문제, 도시적 삶의 고통과 좌절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식인의 삶에 대한 사실주의적 접근, 사회의 퇴폐적인 분위기에 대한 풍자적인 작품, 지식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관찰 등 다양한 주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 1) 한국 사회의 풍속을 피카레스크 수법으로 추적한 작품들 : 「주말여행」, 「무전여행」, 장편 「이인삼각」
- 2) 관능의 세계와 행동의 아름다움에 주목한 작품들 : 「피카소와 개구리」, 「역류」, 「폭군」, 「7월의 바다」, 「역조」
- 3) 지식인의 고민과 좌절을 표현한 작품들 : 「즐거운 지옥」, 「탈신」, 「무사와 악사」
- 4) 현재 조직사회의 메커니즘에 갇힌 인간에 대한 알레고리 : 「종합병원」, 「어떤 제대」, 「프로방스의 이발사」

4) 홍성원, 「작가 서문」, 『폭군』, 나남출판, 1999, 6면.

5) 이광훈, 「조직의 힘과 개인의 해체」, 『홍성원 깊이 읽기』, 103-113 면 ; 김치수, 「남성 문학의 세계」, 『홍성원 깊이 읽기』, 86면. “그가 다루어온 세계는 초기의 군대와 전쟁 문제로부터, 도시적 삶의 고통과 좌절, 조직과 폭력의 문제를 거쳐, 최근의 역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방대한 것이다.”

6) 김만수, 「홍성원 문학연구의 방향」, 『작가세계』 18, 1993, 78면. “홍성원의 작품은 크게 보아 초기의 병영소재소설, 중기의 중단편소설, 그리고 최근의 역사대하소설로 나눌 수 있다.”

7) 김만수, 위의 글, 78-81면 참조.

- 5) 억압된 세계에 대한 예민한 항의를 담고 있는 정치소설 : 「도깨비 웃음」, 「삼인행」, 「괴질」
- 6) 어린 시절에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회상 : 장편 「기찻길」, 「월경」
- 7) 바다낚시와 관련된 여행 소설 : 「누항의 뗏」, 「공룡을 본 사람들」, 「남도 기행」
- 8) 노동문제와 같이 사회적 모순에 주목한 작품 : 「흔들리는 땅」<sup>8)</sup>

세 번째는 역사소설이다. 홍성원의 역사소설은 한국의 참담한 역사에 대한 조명과 성찰을 이루어내고 있다. 조선시대 이순신의 삶과 죽음을 조명한 『달과 칼』, 개화기부터 3.1운동까지 격동의 역사를 다룬 『먼동』, 한국전쟁의 비극과 문제점을 형상화한 『남과 북』, 그리고 일제하 친일 지식인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 『그러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sup>9)</sup>

네 번째는 연재소설이다. 홍성원의 연재소설은 1966년 장편 『막차로 온 손님』(『주간한국』)에서 시작된다. “원고지 6백장이 채 못 되는 장편 『막차로 온 손님』은 60년대 젊은이들의 방황과 고뇌, 좌절 따위를 그 시대의 우울한 풍속도와 대충 얼버무려 만든 일종의 소모품이다. 주문 생산된 최초의 연재물인 이 작품은 그 후에 밥벌이로 이어지는 다른 신문 연재물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다.”<sup>10)</sup> 초창기만 살펴보다도, 1967년에는 『고독에의 초대』(『부산일보』)과 『호두껍질 속의 외출』(『세대』) 『산신의 딸』(『여성동아』), 1968년에는 『곡예사의 혁명』(『경향신문』), 1969년에는 『사랑 강조주간』(『주간중앙』)과 『가을에 만난 여행자』(『지방행정』)을 연재한 바 있다. 보다 정확한 자료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1966년부터 1991년까지 연재 횟수는 25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재소설까지 포함하여야 ‘전업작가’ 홍성원 문학세계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1)</sup>

홍성원의 소설은 세계의 억압적 폭력과 그에 맞서는 주체의 힘 사이의 역동적 관계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다. 이 글에서는 1960-70년대에 발표된 중단편을 대상으로 홍성원 소설에 나타나는 ‘싸움’의 윤리학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sup>12)</sup>

#### 4. 폭력의 구조로서의 세계 : 「월경(越境)」

8) 김병익, 「진실의 발견과 장인 정신」, 『홍성원 깊이 읽기』, 71면 참조.

9) 역사소설의 배후에는 지속적인 독서와 토론이 가로놓여 있다. 홍성원은 1966년부터 ‘일요회’라는 독서모임을 조직하여 진덕규, 이만열, 황동규 등과 명동의 ‘동방’에 모여 토론과 술자리를 이어갔다.

10) 홍성원, 「열린 세상 쪽으로 뚫린 좁고 긴 터널」, 『홍성원 깊이 읽기』, 58면.

11) 향후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풍속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홍성원의 연재소설들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2) 긴장, 대결, 도전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를 보다 섬세하게 읽어나가기 위한 주제가 싸움이다. 기존 연구로는 오생근, 「긴장과 대결의 미학」, 『홍성원 깊이 읽기』, 95-102면 ; 김인환, 「도전의 미학」, 같은 책, 124-136면 ; 이남호, 「패배의 미학과 어조의 미학」, 같은 책, 225-229면 ; 김만수, 「정글의 논리에 의해 역조명된 인간의 세계」, 『작가세계』 18, 1993, 18-33면 참조.

세계는 폭력의 구조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싸움이다. 홍성원의 소설들이 승인하고 있는 명제이다. 유년시절에 관한 기억에서도 세계의 폭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장면들이 발견된다. 해방 전 강원도 금화군에서 보낸 유년시절을 회고하면서, 홍성원은 해금강의 아름다움, 태평양전쟁의 열기, 말[馬]에 대한 기억과 함께 일본인 급우와의 싸움에 대한 기억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던 일본인 동급생과의 끊임 없는 싸움이다. (...) 골목대장의 헤게모니를 놓고 나는 그 일본인 급우와 거의 매일같이 흑독하게 싸웠다. (...) 부친은 동경 유학 시절에 도장에서 정식으로 권투를 익혀 전 일본 학생의 페더급 챔피언까지 차지했던 관록이 있다. 챔피언의 아들이 동네 싸움에서 얻어맞다니, 부친은 꽤나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부친의 진지한 교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상처투성이의 썩쓰레한 승리만 얻었을 뿐이다. (...) 그러나 나는 이 학우와 멀지 않은 훗날 슬픈 작별을 고해야 했다. 일본이 패망하여 조선인의 보복이 날로 가혹해지자 그 학우는 며칠간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어느 새벽녘에 홀연히 떠나버린 것이다.<sup>13)</sup>

「월경」은 해방 직후의 유년시절과 관련된 경험이 반영된 작품이다.<sup>14)</sup> 이 작품에 나타난, 폭력과 관련된 3 가지의 경험은 주목이 대상이 된다. 첫 번째는 급우였던 데루꼬의 죽음이다. 해방이 되자 급우였던 데루꼬(耀子)는 어린 동생과 함께 줄지에 고아다 된다.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일본도로 부인을 죽이고 자신도 할복한 것이다. 데루꼬 남매는 집을 빼앗기고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돈다. 남매의 옷에는 일본 육군 소좌의 딸과 아들이니 조부가 살고 있는 규슈(九州)까지 보내달라는 글이 적힌 형겅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데루꼬 남매는 끝내 그들의 고향인 규슈로 가지 못했다. 데루꼬는 동생과 함께 동네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주 더러운 거지로 지내다가, 어느날 그 어린 거지 남매는 냉면집 돌다리 밑에서 수척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체가 이워지던 날, 동급생이었던 소년은 남몰래 골방 속에서 숨을 죽이고 흐느껴 울었다. 그는 어째서 데루꼬 남매가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 하지만 그는 어른들의 제지와 만류로 거지짓을 하는 데루꼬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소년의 어머니 역시 데루꼬 남매가 죽은 날은 남몰래 눈물을 흘려서 두 눈이 빨강게 충혈되었다. 하지만 데루꼬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웬일인지 어른들은 끝내 데루꼬를 도와주려하지 않았다. 소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른들의 행동이다. 왜 그들은 데루꼬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사과껍질을 주워먹는 그녀에게 밥 한술을 주려하지 않았던가.<sup>15)</sup>

13) 홍성원, 「자전에세이 : 소리 내지 않고 울기」, 『폭군』, 나남출판사, 1999, 10-11면.

14) 위의 글, 12면. “우리는 그 후 가족을 두 패로 나누어 1946년 초겨울에 38선을 몰래 넘어 원래의 고향인 남한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그 두렵던 월남 경험은 <월경>이라는 단편 속에 별다른 허구의 첨가없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데루꼬 남매의 죽음은 비가시적인 폭력 또는 비물리적인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남매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도울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데루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의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폭력의 주체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폭력은 특정한 사건(힘의 작용)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즉 암묵적인 침묵과 태도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소년 또한 데루꼬의 죽음과 관련된 공범일 수 있다는 죄의식도 엿보인다.

두 번째는 마을 처녀 금순이와 관련된 폭행이다. 일본군이 물러가자 로스케들이 들이닥쳤고, 로스케들은 금순이를 집단 성폭행한다. 하지만 그때도 어른들은 침묵할 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대문을 잠그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소년이 목격한 살인이다.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남쪽으로 월경을 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에게 검거를 당한다. 압송되기 직전에 아버지가 보안요원을 쓰러뜨렸고, 이미 묶여있던 두 청년이 밧줄을 풀고 합세한다. 떠나오던 소년은 청년들이 돌로 요원을 쳐 죽이는 장면을 어둠 속에서 보게 된다. 보안요원의 검거에 맞선 아버지의 공격은 정당하다. 하지만 소년은 보안요원을 죽여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주체의 힘과 세계의 폭력은 서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뒤엎길(서로의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으며, 폭력에는 인간이 제어하기 어려운 확장성(광기)이 가로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월경」에는 폭력에 대한 홍성원의 원초적인 경험과 기억이 드러나 있다. 데루꼬를 도울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어떤 힘들, 마을의 처자 금순의 아랫도리를 피범벅으로 만든 그 어떤 힘들, 남쪽으로 가려는 소년의 가족을 가로막는 그 어떤 힘들,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보안요원을 돌로 수차례에 걸쳐서 내리치게 만든 그 힘들. 세계의 폭력은 죽음과 같은 가시적인 차원으로도 나타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비가시적인 차원으로도 나타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는 폭력의 구조라는 것이며, 그 폭력의 구조에 맞서 싸워 이기거나 버티나갈 힘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 5. 폭력의 가시성과 비가시성 : 싸움의 미달 형태로서의 한국전쟁

폭력의 문제는 홍성원 소설의 기본향이다. 소년기를 한국전쟁 속에서 보낸 것과도 관련이 깊다.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발표한 「전쟁」과 제대를 전후해서 발표된 「빙점지대」, 「기관차와 송아지」, 「디데이의 병촌」 그리고 1975년부터 『세대』에 5년간 연재한 『남과 북』(연재당시의 제목은 '육이오')에 투영된다.

15) 홍성원, 「월경」, 『무서운 아이』, 서음출판사, 56-57면.

그 후로 3년, 내가 이 기간중 한 일이라고는 군대라는 몬도가네 집단에서 나 자신을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지킨 것뿐이다. 하늘이 십 원짜리 주화보다고 작은 그 고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파괴하려고 했다. 그 부당한 세력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3년 동안 불철주야 피투성이로 싸운 것이다.<sup>16)</sup>

세계의 폭력성과 나의 힘이 피투성이로 싸우는 것.<sup>17)</sup> 싸움은 홍성원 소설의 원점이다. 『남과 북』의 경우 전쟁의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장교가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건 살인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6·25가 동족간의 전쟁이어서 이민족들 간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틀마저 지켜지지 않고 살육과 보복, 광기와 폭력, 맹목성과 무자비성,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서 연유한다.<sup>18)</sup> 전쟁과 살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쟁과 살인은 폭력이 매개된 행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전쟁이 최소한의 틀에 입각하여 수해되는 폭력의 상호교환이라고 한다면, 살인은 폭력의 비대칭적 교환 내지는 일방적인 집중이다. 전쟁이 승리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벌이는 경쟁의 양상이어서 승패를 나누어 갖는다면, 살인에는 살해자와 피해자가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살해자와 희생자를 생산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홍성원이 전쟁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홍성원은 한국전쟁은 외견상 그리고 명목상 전쟁일 뿐이지 실제로는 살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전쟁이란 제대로 된 싸움의 논리를 가져야 하는데, 한국전쟁은 싸움의 논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전쟁은 싸움에 미달하며 왜 살인에 지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대리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초월적이고 거대한 폭력들이 전쟁을 추동했고 한국인들은 초월적인 폭력의 대리인들이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들은 싸움의 주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스스로 싸움의 주체라고 착각하는 자기기만의 구조를 스스로 둘러쓰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까닭없이 살해하고도, 전쟁에서는 기묘하게도 그 행위를 책임지거나 처벌받을 사람이 없다. 사람처럼 눈과 귀와 심장의 박동이 없는 전쟁은, 앞으로도 조국·민족·성전(聖戰) 따위의 거창한 이름으로 무수한 젊은 사람들을 숲과 늪지대와 산골짜 등지에서 대량으로 살해할 것이다.<sup>19)</sup>

전쟁은 폭력이 가장 가시화되는 시공간이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진짜 주체는

16) 홍성원, 「자전에세이 : 소리 내지 않고 울기」, 『폭군』, 나남출판사, 1999, 27면.

17) 용어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폭력, 개인에게 내재된 경우에는 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18) 『남과 북』의 해석에 대해서는 김치수, 「남성 문학의 세계」, 『홍성원 깊이 읽기』, 87-88면 참조.

19) 홍성원, 「『남과 북』 서문」, 『홍성원 깊이 읽기』, 314면.

가시화되지 않고 비가시적인 영역 속에 자리를 잡는다. 가시적인 폭력에 휩싸인 대리인들은 자신들이 힘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의 초월적이고 거대한 폭력에 의해 기만당한 희생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홍성원에 의하면, 전쟁은 폭력이 집중되는 최대의 사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할 사람을 찾을 수는 없다. 홍성원은 책임의 귀속을 가릴 정당한 싸움을 하고자 하지만, 폭력의 주체는 비가시적 영역 속으로 숨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폭력은 싸움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제 홍성원의 싸움은, 싸움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폭력과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띄게 된다.

## 6. 폭력의 비가시적인 구조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희생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폭력은 희생자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다. 하지만 폭력의 주체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면모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제대」는 군대의 행정착오로 6개월 이상을 초과 근무한 어느 상사의 이야기이다. 이미 6개월 전에 제대 특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명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6개월을 더 복무한 것도 억울한데 6개월분의 봉급을 물어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문제가 이렇게 분명한 데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네가 이번에 당한 피해는 군대 행정상의 착오에 불과하네. 자네가 만일 호소를 한다면 군대를 상대로 호소하는 결과가 되네.”

“군대의 누구를 향해서 말입니까?”

“그건 누구라고 지적할 수 없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닐세. 책임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네.”

“60만이 넘는 군대 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60만은 사람이 아니야. 군대라는 이름의 얼굴 없는 덩어리일 뿐이지.”<sup>20)</sup>

폭력의 비가시적인 성격은 현대의 조직사회에서도 반복된다. 현대적 조직에 내재된 폭력의 비가시성은 「종합병원」에서 제시된다.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에서는 오진이 계속된다. 나, 여대생, 젊은 청년이 병실을 같이 사용하는데, 나는 위하수가 위산과 다로 오진된 경우이고, 여대생은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 오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위암 환자인 청년이 각혈을 해서 간호원을 찾자, 돌아온 응답은 조용히 해 달라는 것이었다. 옆방에서 정부의 관리를 대상으로 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청년은 죽음에

20) 「어떤 제대」와 관련된 설명과 재인용은 이광훈, 「조직과 힘과 개인의 해체」, 107-8면 참조. 추후 확인.

이르고 만다. 문제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우선 위하수를 위산과다로 오진을 한 닥터 최도 기실은 닥터 박이 휴가를 간 틈에 그의 대신 나를 보아 준 죄밖에 없다. 그에게 오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건, 극장에서 잃어버린 돈지갑을 극장 주인에게 물어내라고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그는 간호원의 말대로 이 병원의 고용인에 불과하며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한 개의 퍽 왜소한 나사못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약을 잘못 먹은 나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알 수 없다.<sup>21)</sup>

원장의 브리핑에 모든 의사들이 참석했고 그 사이에 위암환자가 죽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나 원장은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물론, 아무 상관도 없어.」”(169)라고 말할 따름이다.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의식이 투영되다 보니 과장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 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의 조직사회는 희생자를 만든다는 것. 하지만 희생자를 만들어낸 폭력의 주체를 찾기는 어렵다. 홍성원 초기 단편에 등장하는 부조리는 폭력의 결과는 가시적인데 폭력의 책임을 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유한다. 폭력은 비가시적이지만 일상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 유인원을 제가 죽였나요?”

“아니오. 내가 죽였소.”

“그런데 어째서 절 체포하죠?”

“우린 당신이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소. 당신을 조속히 체포하기 위해 이 유인원은 내가 죽였소.”

P는 잠시 말뜻을 몰랐으나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예정된 수순이다. 누군가가 꾸며놓은 예정된 수순에 그는 지금 피할 수 없이 한 걸음 두 걸음 끌려가고 있을 뿐이다.<sup>22)</sup>

폭력은 전쟁이라는 시간 속에, 또는 군대라는 장소 속에 제한되지 않는다. 폭력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괴질」은 폭력과 일상에 대한 홍성원의 무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보건소 직원이 괴질이 만연하는 읍을 방문하면서 기묘한 곤경에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로서, 카프카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보건소 직원은 괴질의 원인이 탄광에 있음을 알게 되지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는 현대의 조직사회에 의해 위험인물로 규정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의 조직사회는 보건소 직원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체포를 한다. 폭력은 대항폭력의 가능성을 미리 삭제함으로써 폭력의 가능성을 확대재생산한다.

21) 홍성원, 『종합병원』, 『무사와 악사』, 열화당, 1977, 152면.

22) 홍성원, 「괴질」, 『주말여행』, 문학과지성사, 1976/2006, 195면.

7. 권태, 또는 싸움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 : 산업화와 대도시 서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산업화는 전후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직 사회의 안정감으로 대체한다. 특히 억압적인 정치 권력 아래에서 조직화의 강제에 묶이게 되면서, 그리고 산업적인 노동 양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시적 삶의 양식이 일상의 규율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수단이나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일상의 풍요에 반비례하여 삶은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된 삶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동시에 생활에서는 생기와 활력에 대해 거리를 두도록 만든다.<sup>23)</sup> “현재의 모든 문화는 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sup>24)</sup> 홍성원은 산업화의 문제를 자동차 공장, 달리 말하면 분업을 통해 노동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포드주의(Fordism)와 연결지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홍성원이 발견한 폭력은 이제 대도시 공간에서 삶의 규율로서 모습을 바꿔 나타난다. 안정된 일상을 위해 획일적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세계의 폭력적 구조는 비폭력적인 외양과 함께 구조화되어 있다.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정치적 혁명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산업화 시대의 논리가 삶에 침착되기 시작하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속물주의가 사회를 지배한다. 직장 과 월급에 의해 삶이 규율되는 상황에서, 삶의 모든 가능성을 걸고 벌이게 되는 싸움(대결)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이미 정해진 선택 가능성 속에서 선택할 자유만이 주어진다. 달리 말하면 선택은 강요되었고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만 주어진 상황이 펼쳐진다. 이를 두고 홍성원은 ‘권태’라고 말하고 있다. 대도시의 사람들은 오늘 점심을 설렁탕으로 할 것인가 잡채밥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다. 사소한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기묘한 전도(顛倒)와 삶의 왜소화 과정 속에 권태가 자리한다. 대도시의 권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소한 선택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만들며 그와 동시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벌이는 싸움의 가능성을 축소한다.

그들은 요즘 사소한 일들에 깊이 생각하는 버릇들이 들어 있다. 그들이 깊이 생각하는 사물들은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은 설렁탕으로 할 것인가 잡채밥으로 할 것인가, 마주 앉은 저 아가씨는 늑땡이가 있을까 아직은 혼자일까, 광장에서 태운 김일성의 허수아비는 누가 밤을 새워 꼼꼼히 만들었을까, 내가 오늘 열두 시 오분 전에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는 내 오입을 눈치 챌까 못 챌까 하는 따위들이다. 남들에게는 하잘 것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sup>25)</sup>

23) 산업화 시대의 삶의 변화에 관해서는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2, 1943면 ; 오양진, 「산업화 시기 여성적 상상력의 서사적 양상」, 『현대소설연구』 52, 2013 283-308면 참조.

24) 홍성원, 『종합병원』, 『무사와 약사』, 열화당, 1977, 162면.

싸움은 사라지고 사소한 선택만 가능한 삶이 권태를 불러온다. 또한 예견가능한 미래 역시 권태의 원인이 된다. 단편 「늪」에 등장하는 남녀 대학생은 가정교사이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으며, ‘걸거나 타거나’ 하는 자잘한 선택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삶의 가능성이 협소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불안도 없다. 다만 그들에게 삶은, 비록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라고 하더라도, 이미 언제나 지켜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 제가 삼십대가 되면 장가를 가게 될 것이고, 냉장고 월부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내 마누라를 제외한 모든 여자가 예뻐 보일 테고, 우리 집과 회사 사이를 하루에 한 번씩 왕복하게 될 겁니다.”

“걸어서 말인가요?”

“걸거나 타거나 상관없습니다. 전 다만 생선장수가 갓 잡은 생선에 소금을 뿌리듯이 제 집과 회사 사이에서 일생을 셋노랑게 저려가며 살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우리들의 비극이죠?”

“예,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들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게 그 비극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아아,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대한 시대를 위해!”<sup>26)</sup>

「늪」에서 남자 대학생은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를 하게 된 여자 대학생과 낭만적인 하룻밤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잠자리를 제안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며 작별을 고한다. 왜 그랬을까.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는 다른 누구와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녀는 다른 누구와 있었어도 잠자리를 제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 나잇 스탠드는 의견상 삶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하여진 수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삶을 은유화하고 있는 일화이다. “권태는 내가 발짝을 땀 때마다 큰북을 두드리듯이 차근차근 고조되고 있다.”<sup>27)</sup>

요즘 나는 아무 까닭 없이 산다는 것에 차츰 싫증과 권태를 느끼고 있다. 직장은 점점 안정되어 장래가 확실히 보장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기(利器)가 발명되어 세상은 날로 살기가 좋아진다. 봉급은 올랐고, 승급도 약속되었고, 마누라는 알뜰하고 자식들도 잘 자란다. 나는 지금의 생활에 별로 큰 불만도 없고

25) 홍성원, 「즐거운 지옥」, 『주말여행』, 문학과지성사, 1976/2006, 135-136면.

26) 홍성원, 「늪」, 『주말여행』, 문학과지성사, 1976/2006, 24-25면.

27) 위의 글, 37면.

미래에도 별로 큰 야심이나 불안이 없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장래가 보장된 행운이며 럭키 보이다. 그러나 왜 이런 럭키 보이가 세상살이가 시들해지고 따분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 뭔가 나라는 사람 대신 내 껍데기가 살고 있는 기분이다. 알맹이는 어딘가로 빠져버리고 내 양복만이 내 이름을 달고 나를 대신 하여 휘젓고 다니는 기분이다.<sup>28)</sup>

「주말여행」은 1970년대에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늘」의 남자 대학생이 이미 예견했듯이,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고 있고 더 나은 생활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시들하고 따분하며, 나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내 양복만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대도시에서 삶은 사소한 선택의 연속으로 환원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소외를 강요받는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도시에서의 삶이 권태로운 또 다른 이유는 밥벌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밥벌이는 싸움터이다. 하지만 권태로운 싸움터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직장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일상의 권태가 삶을 장악한다. 사람들은 지쳐가고 흐물흐물해진다. 싸울 수 있는 기력은 이미 언제나 소진된 상태에 있다. 홍성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도시의 권태는 거대한 폭력이 만들어낸 결과(영향)이다. 그리고 권태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의 감퇴와 싸움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그들의 직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액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무지하게 권태로운 싸움이다. 그들은 그러나 그 권태로운 싸움터를 버릴 수가 없다. 버리기는커녕, 매일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 허겁지겁 칫솔을 물고, 허겁지겁 아침밥을 뜨고, 허겁지겁 버스를 타고, 허겁지겁 일터로 달려가고,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새벽 일곱 시에는 눈이 떠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지친 것은 새벽 일곱 시의 기상과, 급히 먹은 아침밥과, 발등이 밟히는 만원버스 따위들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는 살아 있구나 하는 뜻밖의 기쁨으로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권태, 집에서 직장까지 정확히 이십팔 분이 걸리는 23번 급행버스라든지, (...) 무심히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언제나 창밖으로 보이는 코카콜라 선전판이라든지, 천장에서 흡사 콩을 굴리는 듯한 저 하염없고 단조로운 타자기 소리 따위가 못 견디게 권태로운 것이다. 그들은 권태에 지친 것이다. 일상의 권태가 그들을 흐물흐물 물렁물렁하게 만든 것이다. <sup>29)</sup>

28) 홍성원, 「주말여행」, 『주말여행』, 문학과지성사, 1976/2006, 225면.

29) 홍성원, 『즐거운 지옥』, 『주말여행』, 문학과지성사, 1976/2006, 158-159면.

## 8. 싸움의 윤리학

그렇다면 홍성원이 욕망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싸움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단편으로 평가되는 「폭군」을 보자. 남한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가 나타났다.<sup>30)</sup>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수렵협회에서 두 명의 엽사를 파견했다. 한 사람은 2성장군으로 퇴역한 후 지금은 국가 기업체의 사장으로 있는 사내다. 세계적인 명성의 엽총과 엽탄으로 무장한 사내에게 사냥은 자기과시를 위한 레저에 불과하다. “사실 그들에겐 짐승 사냥이 골프나 마작 사교춤 따위의 흥겨운 놀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155) 반면에 노인(박포수)은 70대의 노인으로서 전설적인 원로급 전문엽사이다. 그는 엽랑 한 개와 구식 엽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사냥에 대한 스스로의 금기를 지키며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아왔다.

결국 노인이 짐승들에게 보내는 애정은 일종의 순수한 동료애와 같은 것이다. 그것에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뿐 복잡한 계산도 까다로운 격식도 없다. 보이지 않는 질긴 끈으로 그는 짐승들과 한 동아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일단 총을 잡으면 노인의 태도는 홀연히 달라진다. 그는 자기와 자기의 상대가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알고 있다. 가급적 노인은 자기의 상대가 강하고 굳세며 지혜롭기를 희망한다. 쫓고 쫓기는 그들만의 다툼에서 이왕이면 양편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그는 상대가 강할 때 두 가지 엇갈린 감정을 경험한다. 하나는 상대에게 맹렬히 불붙는 강한 투지고 또 하나의 감정은 상대의 지혜와 담력에 저절로 우러나는 존경과 경탄이다. 결국 노인의 그 두 개의 감정들은 애정이라는 한 개의 바탕 위에 형제처럼 자리해 있는 것이다.<sup>31)</sup>

사냥은 정정당당히 싸우는 나와 정정당당히 싸울 상대가 서로 조금의 양보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싸움이다. 정당한 싸움으로서의 사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최선을 다한 끝에 노인에게 남는 것은 겨룸의 결과가 아니라 녹녹지 않은 상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이다.”(156) 그렇다면 싸움은 단순히 승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싸움은 정정당당한 두 주체를 배분하여 정립하는 방법이

30) 여기서 호랑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범이 출몰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범에게 죽고 다치고 하면서도 제를 올리면 신성시한다. 여기에 대해 박 포수/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포악한 짐승에게 오히려 제를 올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까지 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폭군 밑에서 소리없이 울고 있는 어느 나라의 가여운 백성들과 흡사하다.”(255면)

31) 「폭군」, 『남도 기행』, 문학과지성사, 1999, 194면. 홍성원이 가지고 있던 싸움의 윤리학이 선명하게 표현된 부분인데, 매우 유사한 내용이 같은 작품에 나타난다. 그만큼 홍성원이 싸움의 윤리에 대해 자각적이었거나 내면화(무의식화)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노인은 사냥을 하는 동안은 짐승과 자기가 은연중에 한 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쫓기는 짐승이나 쫓는 사람이나 피차 최선을 다할 뿐 조그마한 양보도 없다. 그는 이런 추적 중에는 아무 잡념도 품지 않는다. 사냥이 시작되면 짐승을 잡거나 놓치거나 그런 것은 이미 노인의 관심 밖이다. 쫓기는 짐승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쫓는 사람은 잡기 위해서 역시 최선을 다할 뿐이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는 별로 마음 쓸 일이 아니다. (...) 최선을 다한 끝에 노인에게 남는 것은 겨룸의 결과가 아니라 녹녹지 않은 상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이다.”(155-156면)

다. 홍성원은 삶에 그리고 죽음에 고유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싸움을 꿈꾸었다. 결국 노인은 호랑이를 잡고 죽었다. 흥미로운 것은 노인과 호랑이가 서로를 껴안고 죽어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이 존경할 만한 또는 자신의 삶을 모두 걸 만한 대상과의 싸움, 그 결과가 무엇이 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sup>32)</sup>

(가) “그들도[세상을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인용자] 가끔 손닿지 않는 목표를 향해 무리한 싸움을 걸 때가 있다. 이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그들이 열심히 부닥쳐 보는 것은, 목표에는 이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패배까지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다. 그들이야말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다.”<sup>33)</sup>

(나) 그들은[서른이 되어 만난 친구들-인용자] 좌우간 맹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 그 맹렬히 다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놀랄 만한 장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심하게 다투는 경우라도 그들만의 몇 가지 룰은 반드시 지켜가며 싸웠다. 그것은 그들이 좀더 진지하게, 좀더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룰이었다. (...) 그들은 결국 그런 종류의 싸움은[근거 없이 인상에 의해 판단하기, 논점에서 벗어나 인신공격하기-인용자] 애당초부터 원하지 않았다. 그런 싸움질은 흡사 두 명의 권투선수가 링 위에서 한참 주먹으로 잘 싸우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형세가 불리하니까 링 밑으로 뛰어 내려가 시퍼런 식칼을 집어 들고 덤비는 것과 비슷한 꼴이었다. 그것은 추했다. 대단히 추하고 불품사나운 싸움이었다.<sup>34)</sup>

홍성원은 패배마저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싸움, 싸울 줄 아는 사람들과의 싸움, 보다 진지하고 보다 치열하고 보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위해 지켜야 할 룰을 반드시 지키는 싸움을 소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소망하는 싸움의 시간과 공간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 현실이 정당한 싸움의 가능성을 삭제하고 있다는 사실, 소설에서도 정당한 싸움을 재현하거나 상상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성원의 소설들은 싸움에 대한 소망과 싸움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게 된다. 홍성원의 중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여행이 이와 같은 운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32) 노인의 죽음은 『남도 기행』에서 제시된 이순신의 죽음과 흡사하다. “문득 이통제 순신의 아름다운 죽음이 생각난다. 그는 칠년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날 전사했다. (...) 그즈음 그의 삶을 지탱시켜준 것은 기이하게도 그의 원수인 왜적들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왜적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가 그즈음의 그의 삶을 지탱시켜준 지주였다. 증오는 그러나 당연하게도 그의 죽음과 동시에 소멸된다. 증오의 주체와 증오의 대상이 같은 시간에 소멸된 것이다.”(『남도 기행』, 『남도 기행』, 문학과지성사, 1999, 92-93면.)

33) 「작가 서문」, 『폭군』, 나남출판사, 1999, 7-8면.

34) 홍성원, 「즐거운 지옥」, 141-142면.

## 9. 삶의 잔여를 탕진하는 제의(祭儀)로서의 여행

어쩌면 나는 지금 그런 어수선한 방향 속에서 잃어버린 내 알맹이를 찾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오리무중의 미궁 속에 숨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sup>35)</sup>

소설이 인간의 존재를 밝혀줄 가치를 탐색하는 서사양식이기 때문에 여행은 소설의 무의식이자 기법이자 플롯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홍성원의 소설에서 여행 또는 기행이 많이 다루어진 것은 그리 놀랍거나 새로운 일은 아니다. 또한 1960-70년대에 접어들어 산악회 단풍놀이 바다낚시 등 산업화 초기의 레저 문화 또는 유흥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하지만 홍성원의 소설에서 여행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탐색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삶이 지닌 의외성을 향해 열어두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나는 항상 놀라기 위한 여행을 준비한다.”<sup>36)</sup> 여행은 도시의 권태를 잠시 비껴나는 잠정적인 도주(逃走)이며, 직장이라는 권태로운 싸움터에 현장부재증명을 등기하는 방식이며, 싸움의 불가능성에 의해서 침전된 ‘저주의 뿔’(G. 바타이유)을 해소하는 제의(祭儀)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소한 취미로 엉뚱한 비용을 쓸 때가 간혹 있다. 가/령 봄철에 딸기를 맛보기 위해 멀리 충청도까지 내려간다든지, 가을에 포도를 먹기 위해 반나절이나 걸려 어느 섬을 찾아간다든지, 좀 더 규모가 클 경우는 싱싱한 전복과 해삼을 먹기 위해 멀리 전라도 해안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창한 여행이 과연 그에 합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따지지 않는다. 사실 그런 경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돈을 절대 환산될 수 없는 미묘한 것들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려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스스로 보상받고 있다. 우리의 이런 비합리적인 행태들을 아마 몇몇 어르신들은 지나친 사치나 낭비라고 비난하거나 꾸짖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에게 그런 종류의 삶의 사치도 없이 어떻게 이 맛있는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반문하고 싶다.<sup>37)</sup>

「주말여행」은 이 시기에 발표된 여행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중산층이 된 친구들이 여행을 떠난다. 목적은 술집에서 여자와 만나 오입도 하고, 무엇보다도 개를 잡는 것이다. 개고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천렵처럼 시내에서 개를 잡는 것이다. 하지만 강가에서 잡기로 한 개를 놓치고 친구가 그 개에게 물리게 되면서 여행은 뒤

35) 홍성원, 「주말여행」, 224-226면.

36) 홍성원, 「작가 서문」, 『폭군』, 나남출판사, 1999, 6면.

37) 홍성원, 「주말여행」, 224-225면.

죽박죽이 된다. 게다가 하루 밤의 인연 때문에 서울에서의 취직을 소망하는 술집여인을 데리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서울로 돌아온다. 그들의 여행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과잉(過剩)은 무엇인가. 서울에서도 여자는 쉽게 살 수 있고 개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도 굳이 지방에 내려와 술집에서 여자를 만나고 개를 잡는 번거로움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개를 잡고자 했던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개와의 싸움을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재현함으로써 싸움에 대한 억압된 무의식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물론, 홍성원의 싸움에 의하면 개를 묶어놓고 잡는 것은 싸움이 되지 못한다. 개가 손을 물고 도망친 것이 오히려 홍성원적인 싸움에 근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도시 서울의 삶은 홍성원이 꿈꾸는 정당한 싸움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싸움의 가능성이 일상의 권태 속에서 소진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 속에는 정당하게 싸우고 싶지만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침전되어 버린 그 어떤 잔여(residue)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홍성원 소설에서 여행은 이와 같은 삶의 잔여를 상징적 또는 상상적인 차원에서 탕진하는 제의이다. 그 과정에서 싸움의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리라.

#### 10. 싸움의 윤리와 작가 정신 : 싸움이자 노동으로서의 소설 쓰기

(다) 오백 원 본전을 제하더라도 공짜로 주운 돈이 칠백 원이 넘지 않는가? H는 갑자기 유쾌하다. 돈을 따서 유쾌한 것이 아니고 저 완강한 파친코 기계들을 패배시킨 것이 유쾌하다.<sup>38)</sup>

(라)나는 천천히, 그러나 침착하게 여인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 놓는다. 반쯤 열린 여인의 입술에서 부드러운 혀가 내 혀를 마중한다. 두 개의 혀가 빼앗고 빼앗기면서 잠시 격렬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싸우기 시작한다. 최초의 다툼이 한 고비를 넘기자 우리는 이번에는 깊고도 다정하게 서로를 아끼며 싸운다.<sup>39)</sup>

홍성원의 소설은 싸운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호승심(好勝心)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돈을 따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파친코 기계와 싸워서 이겨서 유쾌하다. 그리고 여행의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하룻밤에서 입맞춤 또한 싸움의 견지에서 묘사된다. 싸움의 무의식은 그의 소설 곳곳에, 묘사의 무의식으로 또는 심리의 무의식으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는 왜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싸움은 홍성원 소설에 내재된 글쓰기의 자기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홍성원은 전업작가이다. 그는 대학 1학년때부터 과외를 하며 식구를 부양했고, 두 동생의 학비를 대주고는 대학을 중퇴했다. 하지만 그는

38) 홍성원, 「즐거운 지옥」, 133면.

39) 홍성원, 「주말여행」, 255면.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소설 쓰기를 선택했다. 1964년 이후 40년 가까이 다른 직업을 전혀 가지지 않고 소설 쓰기에 전력을 다했다. 왜 그랬을까. 다만 그의 작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세계의 폭력성에 연루되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생계를 담보로 권태의 삶을 견뎌야 하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싸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세계의 억압성에 맞서서 항의하고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소설로 다가왔던 것이 아닐까. 아마도 직업적 일상에 몸을 담그고 세계의 폭력적 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어떻게 세계의 폭력적인 면모를 비판하고 성찰하는 글을 쓸 수 있겠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했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비평가 김인환이 지적하고 있듯이, 집과 일터를 통해서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 계급투쟁과 권력 투쟁을 분유(分有)”<sup>40)</sup>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홍성원에게 소설쓰기는 밥벌이의 측면을 갖는다. 하지만 그의 소설 쓰기에는 밥벌이와 동등한 비중의 윤리적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

똥 같은 놈들이다. 그러나 그 똥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갈퀴로 긁고 있다. 그들은 식사 중에도,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포동포동 살이 찢여비서의 배 위에 올라가 있을 때도, 그리고 정신없이 쿨쿨 잠을 잘 때도 돈을 벌고 있다. 아니 돈이 벌려지고 있다. 그러나 H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네모반듯한 이백 개의 구멍들이 그려진 원고지 장수로만 돈을 번다. 그곳에는 터럭만 한 에누리도, 요란스런 박수 소리도, 동전 한 푼의 특혜도 없다.<sup>41)</sup>

단순히 부유한 계층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는 글은 아니다. 두 가지의 노동 양식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글쓰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오히려 정당할 것이다. 자본에 의해 잉여가치가 증식하는 노동과 원고지 장수로만 수입이 정해지는 노동의 대비에는, 홍성원이 싸우면서 지켜온 노동의 윤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소설쓰기 즉 밥벌이는 윤리성을 갖는다. 그것은 노동의 윤리성이기도 하다. 그는 노동자로서의 전업작가이다. 홍성원에 의하면, 글쓰기는 잉여이윤을 산출하지 않는다. 그는 글쓰기가 갖는 노동의 정직함을 자신의 윤리적 지표로 삼았다. 원고지를 메우는 만큼만 계산되는 노동.

그는 갑자기 목이 졸리는 듯한 괴로움을 느낀다. 집 안 구석구석에까지 웅크리고 앉은 가난. 소설의 어려움 따위들이 한데 뭉친 괴로움이다. 그는 다시 눈을 뜬다.

—취직을 할까? 취직을 해서 아늑하고 안전한 달팽이 껍데기 속으로 기어들어갈까?

40) 김인환, 「도전의 미학」, 『홍성원 깊이 읽기』, 127면.

41) 홍성원, 「즐거운 지옥」, 154면.

—비겁한데?

—비겁하다고? 그러나 넌 소설의 어려움에 벌써 확 질리지 않았나? 지치지 않았나? 패전지장이 무슨 변명인가?

—그러나 아니다! 씨팔 아니다.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 임마!

그는 다시 고개를 내두른다.

—씨팔, 지금까지 넌 깨끗하게 살아왔다. 두 눈을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누구한테나 '넌 틀렸어!'하고 샷대질을 하며 살아왔다. 한데 이제 와서 귀를 막고 달팽이 껍데기 속으로 '본인 후퇴합니다'하고 기어들어가? 곤란한데, 곤란하지, 곤란하고 말고. 넌 아마 지금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 그건 지옥인지 모른다. 아니 분명히 지긋지긋한 지옥이다. 그곳에는 리더도 없고, 길잡이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순도(純度) 백 프로 이상의 완전무결한 자유가 있을 뿐이다. 그건 지옥 같은 자유다. 사막 같은 자유다. 길도 없고 의무도 없고 오직 성실만이 대뚝하게 남아 있는 자유다.

—그러나……

—그러나?

—그래 그러나!

—그러나 뭐냐?

—그건 즐거운 지옥이다. 눈뜬 지옥이다, 알아들어?

—씨팔……42)

소설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돈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100%의 자유, 글쓰기의 자유가 주어져 있을 따름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 패전지장이라고 말한다. 왜 소설가가 싸움에 진 장수인가. 이유는 명확하다. 홍성원에게 소설쓰기는 싸움이고 대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밥 벌어먹기의 구차함과 싸움이자, 점차 속물화되어갈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사회(세계)와의 싸움이다. 홍성원은 평생 소설가 이외의 다른 직함을 가지지 않았다. 소설이라는 글쓰기가 그의 싸움터였다. 홍성원에게 소설쓰기는 밥벌이의 측면을 갖는다. 그가 쓴 20여 편에 달하는 연재소설들이 그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밑바탕에는 소설쓰기는 노동이다라는 테제가 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홍성원은 전업작가이다. 하지만 전업작가라는 말이 소설 쓰기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매우 섬세한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직장을 가지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소설 쓰기를 평생 동안 수행해 왔다는 의미가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세상은 그에게 말한다. 소설 쓰기의 신산스러움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유명 출판사의 편집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에게는 직장을 갖지 않으면서 글을 쓰는 일 자체가, 세계와의 싸움이자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홍성원을 많은 소설을 쓴

42) 위의 글, 164-165면.

전업작가로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와의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으로서 소설쓰기를 평생 지켜나간 전업작가로 기억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1.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지켜내는 일이 내 문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람답지 않은 일을 강요하고, 사람답지 않게 살기를 강요하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강요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기를 강요합니다. 온갖 억압적인 장치들, 예를 들면 폭력·기만·위선·권위·독선·제도·이기주의·권력 따위들이 우리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게 사람답지 않게 만들거나 강요하는데, 이 부당한 억압 장치와 기제들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것이 문학의 소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소설에서도 개인이 그 시대가 행사하는 온갖 폭압이나 시련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인간다움을 지켜가는가에 주목합니다.<sup>43)</sup>

---

43) 홍성원·홍정선, 「대담 : 자신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러나'라는 질문」, 32면.

여 백

홍성원 소설에서의 젊음  
-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복도훈(문학평론가)

여 백

# 홍성원 소설에서의 젊음

## -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복도훈 (문학평론가)

### 1.

고(故) 홍성원(洪盛原, 1937~2008)의 소설은 작가가 여러 소설에서 각별히 애호하는 풍경으로 그려낸 것으로, 까마득한 수평선이 펼쳐진 망망대해에 비유할 만하다. 생전에 작가가 써낸 소설 분량도 어마어마하거니와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만한 소설에 합당한 비평적인 평가가 그다지 동반되지 않았다는 데서 홍성원의 소설은 한국소설사에서 미지의 탐사를 남겨놓은 해석학적 수평선과도 같다. 작가 자신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는 말했지만 작가의 친우이자 비평가인 김병익이 1970년대 중반에 붙인 ‘소설공장’이라는 별명에 다소 어울리게도 홍성원은 생전에 엄청난 분량의 소설을 썼다. 그러나 공장에서 연상되는 대량생산과는 별도로 홍성원의 소설은 스타일 면에서는 그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던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독특하며, 그 주제는 다양하고 풍요롭다고 할 수 있다. 김병익이 후에 자설(自說)한 대로 작가 홍성원은 “여러 종류의 생산품을 동시에 제작해내는 고품질의 고급한 공장”<sup>44)</sup>이었던 것이다. 홍성원 소설의 스타일의 독특함과 주제의 다양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비평가들이 주목하고 조명한 바 있지만 그러한 주목과 조명이 홍성원의 소설 세계 전체로까지 아직은 많이 뻗어나가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게 드는 실감이자 판단이다. 워낙 방대한 작품들도 그러하거니와, 그때그때의 특수한 문학 환경과 문단의 상황에 따라 특정 작가와 작품으로 쏠리는 과도한 관심 속에서 홍성원의 소설에 대한 비평적 조명과 평가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 그리 고르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4·19 세대를 전후로 한 1960년대의 문학에 대한 새롭고도 중요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1960년대 주요 작가들에 대한 단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원 소설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작품에 대한 재조명이나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글은

44) 김병익, 「진실의 발견과 장인 정신」, 홍정선 엮음,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7), 71쪽.

홍성원의 문학적 생애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1960년대의 단편에서 장편에 이르는 소설 몇몇에 초점을 맞춰 소설에 나타난 젊음의 표상을 추출해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이 글은 홍성원 문학에서 『남과 북』(1970~75)과 같은 중요한 대하소설로 나아가기 이전의 초창기 문학의 특성을 재조명하는데 조그마하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홍성원은 1964년에 장편 『디데이의 병촌(兵村)』, 단편 「빙점지대」와 「기관차와 송아지」가 각각 당선됨으로써 문단의 총아로 화려하게 데뷔한다. 그리고 1960년대에 홍성원은 잘 알려진 「늪」(1969), 「무전여행」(1968)의 단편과 「폭군」(1969)과 같은 뛰어난 중편뿐만 아니라, 『디데이의 병촌』을 포함해 무려 9편에 이르는 장편소설<sup>45)</sup>을 신문과 잡지에 연재하거나 단행본으로 펴내기에 이른다. 그런데 홍성원의 1960년대 중단편이 비평적인 관심을 비교적 많이 받는데 비한다면 작가의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와 비평은 『디데이의 병촌』에 지나치게 쏠려있어 보인다. 이와 비교해보면 홍성원이 1960년대에 발표하고 연재한 무수히 많은 장편소설에 대한 종합적인 비평과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하겠다. 그런데 홍성원의 장편소설들의 주인공 또한 그의 중단편의 주인공 및 작중인물과 비슷하게 다수가 청년들, 그것도 사회적인 입사가 임박한 청년들이 다수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인물들의 이러한 특징은 1960년대 홍성원 소설의 스타일과 소재 및 주제의식과 세계관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한층 주의를 요한다.

## 2.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를 최소화하고 인물들 간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배치하면서 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이나 행동의 개방성을 보장하는”<sup>46)</sup> 홍성원 소설의 스타일은 주제 면에서 비정하고도 폭력적인 세계를 어떠한 감정적인 수식도 최대한 배제한 채 냉정하게 응시하는 소설의 밑바탕을 형성한다. 작가의 주제의식은 인간 삶의 자유로움을 질식하게 만드는 권태와 죽음, 그리고 그러한 권태와 죽음을 낳게 하는 사회적 무질서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패배하거나 좌절하는 인간을 향해 있으며, 그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과 연대의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있다. 그의 소설이 한편으로는 주로 여성과 동료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성적 결사와 연대를 자주 그려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의 행동반경은 매우 넓으며, 그가 답파하는 세계는 다양하다. 장편 데뷔작인 『디데이의 병촌』(1964)의 공간적 배경인 군대, 『호두껍질 속의 외출』(1967~68)의 회사처럼 수직적 위계와 더불어 개인보다는 조직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규율사회에서 『역조(逆潮)』(1966)의 바다와 부두, 섬처럼 거친 남성들이 활동하고 신뢰와 우정만큼이

45) 1964년: 『디데이의 병촌』, 1966년: 『막차로 온 손님들』, 『역조』, 1967년: 『고독에의 초대』, 『호두껍질 속의 외출』, 『산신(山神)의 딸』, 1968년: 『꼭예사의 혁명』, 1969년: 『사랑 강조 기간』, 『가을에 만난 여행자』

46) 이경호, 「움직임의 미학을 찾는 항해일지」, 『작가세계』(1993년 가을호), 38쪽.

나 범죄와 배신 또한 허다하게 발생하는 야생적이고도 원초적인 삶과 죽음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홍성원의 소설의 배경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김병익은 다양한 장르와 기법의 소설을 쓴 홍성원 소설의 주제를 대체로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데<sup>47)</sup>, 그 가운데서 홍성원 소설에서 젊음과 관련되는 소설적 주제의 성격은 대체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피카레스크 수법을 통한 현대 사회의 풍속적인 변화에 대한 탐구. 김병익은 「주말 여행」, 「무전여행」과 같은 소설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 장편소설 『가을에 만난 여행자』(1969~70)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1960년대 장편소설 가운데 젊음과 성(性)의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추구한 『가을에 만난 여행자』는 주인공 청년이 무전여행에서 되돌아오는 길의 크로노토프<sup>48)</sup>가 상징하듯이, 좌충우돌하는 갈지자로 미지와 불확실의 세계로 혼란스럽게 나아가면서 자신만의 주체성을 추구하는 젊음을 재현하는 작품이다. 둘째, 진지한 문체로 그려내는 지식인의 고뇌와 좌절. 여기에는 장편소설 『막차로 온 손님들』(1966)이 포함되는데, 이 소설 또한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세 명의 젊은 주인공들의 연애와 방황, 고뇌를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 『디데이의 병춘』, 『호두껍질 속의 외출』처럼 조직과 갇힌 상황 속에서 갈등과 좌절을 겪는 개인과 『역조』에서 신뢰와 의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범죄를 선택해 그 나름의 삶과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하지만, 그 범죄로 인해 결국 죽음으로 향해갈 수밖에 없는 범죄자 주인공에게도 젊음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음을 덧붙여야겠다. 그런데 이 두 주제는 젊음을 직간접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계열의 소설을 관통하는 보다 일관된 주제로 요약이 가능한바, 그것은 풍속과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젊음의 방황과 좌절, 그를 통한 주체성의 추구에 있다. 근대사회의 가치관 및 풍속의 혼란스러운 변동에 대응하는 젊음에게는 특유의 이동성(mobility)과 내면성(interiority)이 부여된다.<sup>49)</sup>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떠한 목표도 없이 어딘가로 떠나가고 표류하는 젊음의 이동성은 또한 사회질서와 풍속의 변화와 부딪치고 그와 불화하면서 젊음에게 내면성을 부여한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한국문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젊음의 문학이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라는 한국적 모더니티의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을 촉발하고 예견했던 두 정치적 사건이 각각 가져온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적, 사회적 부의 증대에 대한 열망 속에 표현된 발전에의 욕망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변모, 개인의 중요성의 증대는 1960년대 문학의 추동력이었으며, 그것을 수행해나간 존재들은 4·19 혁명 등을 젊었을 때 맞이한 신세대의 젊은 작가들이었다. 그러나 혁명에의 열망이 서서히 고갈되고 국가에 의한

47) 김병익, 「진실의 발견과 장인 정신」, 71쪽.

48) 크로노토프는 “문학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으로, 바흐친이 “길의 크로노토프에서는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 사이의 통일성이 대단히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많은 작품들이 길의 크로노토프 및 길에서의 만남과 모험을 직접적인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특별히 피카레스크 소설장르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하일 바흐친,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외 2인 옮김 (창작과비평사, 1988), 260쪽, 277쪽.

49)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유럽 문화 속의 교양소설』, 성은애 옮김 (문학동네, 2005), 28쪽.

일방적이고도 폭력적인 산업화, 근대화의 영향은 농촌과 도시 등 사회의 급격한 변모와 가치관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되면서 풍속과 에토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러한 사회적 모순과 가치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없을 때, 문학과 예술을 그것을 상상적으로 꿈꾸기 시작한다. 여기서 김병익이 '피카레스크'라고 부른 소설기법은 1960년대 후반의 한국소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역시 필자가 김병익으로 추정되는 문예시평인 「우리소설의 새 경향 피카레스크 작법」(1970)에서 홍성원 등의 소설을 일컬어 이 글의 필자(김병익)는 피카레스크 소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미리 구상된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배제하고 등장인물이 일상적으로 겪는 무궤도(無軌道)한 사건과 의식을 기록하는” 소설이다. 그리고 “육십 년대에 주로 육십 년대 작가들에 의해 발견된 이 피카레스크 수법은 우리 문학에 중요한 현상학적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찾지 못하는 우리 작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 해명하는데 적절한 수법으로 피카레스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론과 현실, 논리와 상황, 한국적인 것과 '새것'이 뒤섞인 상태의 수정 없는 표현이기도 하며 작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립시키지 못한 방황과 모색의 태도이기도 하다.”<sup>50)</sup> 다시 말해 피카레스크 소설은 방황하고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불행한 의식의 젊음에 대한 상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더니티의 혼란과 소용돌이, 불화를 재현하는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전신(前身)이다. 김병익은 홍성원 소설에 대한 다른 글에서도 “풍속으로부터 가치관에 이르는 제 양상의 변모와 징후를 파악하는”<sup>51)</sup> 피카레스크 수법<sup>52)</sup>이 1960~70년대 홍성원의 소설을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홍성원 소설에서 재현된 젊음의 의미와 사회적 징후를 추출하고자 한다.

### 3.

홍성원의 「눈」과 「무전여행」에는 삶과 꿈에서 좌절되고 탈락된 젊음의 방황과 희망 없음과 그것과 무관하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적 풍속도의 이면이 잘 그려져 있다. 부잣집에서 각각 다른 시간 대에 과외교사를 하는 두 젊은 대학생 남녀가 우연찮게 저녁에 만나 함께 길을 걸으면서 다소 페이스스를 자아내는 희극적인 대화를 번갈아 주고받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눈」에서 여학생과 주인공 '나'는 각각 10년 후의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게 비극”<sup>53)</sup>임을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부잣집과 대비되는 자신들의 가난하고도 누추한 일상생활에 대한

50) 김병익, 「우리소설의 새 경향, 피카레스크 작법」, 『동아일보』, 1970. 5. 12. 5면.

51) 김병익, 「건강한 다이너미즘」(해설), 『한국문학전집 33권: 홍성원·김용성 편』(삼성당, 1993), 530쪽.

52) 미하일 바흐친은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새로운 점은 잘못된 인습을 대단히 강도 있게 폭로하며, 실제로 현존하는 사회구조 전체를 폭로한다는 데 있다.”고 쓰는데, 이 글의 맥락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미하일 바흐친,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 358쪽.

53) 홍성원, 「눈」(1969), 『주말여행』(문학과지성사, 1976; 2006), 25쪽.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각자에게 예견된 미래를 말한다. 여대생은 “소학교에 다닐 때는 잔 다르크가 되고 싶었”으나 “졸업할 무렵에는 콜걸로 낙착될 것 같”다고 하며, ‘나’는 “삼십 대가 되면 장가를 가게 될 것이고, (중략) 우리 집과 회사 사이를 하루에 한 번씩 왕복하게 될 겁니다.”라고 한다(24쪽). ‘콜걸’이라는 다소 극단적이고도 자극적인 표현 속에서 여학생은 자신의 가난한 노동력을 파는 부잣집과 세상에 대해, 모성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한편으로 황당한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끝내는 자살을 과격하게 예찬한다. 이에 비해 ‘나’는 그러한 과격한 여학생과 그녀의 발언에 이끌리면서도 소시민의 평범하고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따분한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가 아닐까 소심하게 두려워한다. 자신들의 미래는 예견되었으며, ‘콜걸’과 ‘소시민’처럼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미지처럼 타락하거나 따분하고도 몰(沒)주체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과의를 하는 부잣집의 젊은 사모님이 자신의 딸의 옛 과외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타락상과 배금주의라는 가치관의 혼란이 소설의 배음(背音)으로 울리는데, 마지막 대목에서 여대생은 ‘나’에게 마치 사모님과 과외선생의 만남에 대한 대타의식의 발현으로 하룻밤의 잠자리를 제안하지만, 그때까지 여대생과의 하룻밤 잠자리를 상상해오던 ‘나’는 오히려 그러한 제안을 실제로 받자마자 그것이 두려웠다가보다 내일 또 다시 만나야 될 두 사람 각자의 미래까지 함부로 그르칠 수는 없는 순간의 일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제안을 거절하기에 이른다. 비록 미래가 슬프게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의 삶을 옥죄는 “권태”가 “내가 발작을 땔 때마다 큰북을 두드리듯이 차근차근 고조되고 있”(37쪽)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권유처럼 내일을 자살과 같은 일탈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것이 불모의 젊음에게 남은 삶의 희미한 가능성이겠다. 「눈」에서 두 사람이 하룻밤동안 걷는 ‘길’은 「눈」보다 먼저 발표된 「무전여행」에서는 「무전여행」으로 확장되고 변주된다. 홍성원 소설에서 여행은 이동성이라는 젊음의 특징을 상징하는 은유이며, 소설에서는 무정형의 플롯으로 구조화된다. 「무전여행」은 입대영장을 받은 스물세 살의 ‘나’가 무전여행에서 만난 ‘김(金)가’와 함께 시골을 떠돌다가 거기서 우연찮게 만난 한 사내로부터 폭풍으로 난파된 배에서 값이 나가는 물건을 털자는 제안을 받고, 그 위험한 일을 수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내의 죽음을 맞이해 어찌할 수 없이 주인공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홍성원 소설에서 여행 그 자체는 마냥 유쾌하거나 젊음의 일탈적이고도 낭만적인 행동으로 결코 간주되지 않는다. ‘나’와 김가가 음식과 술을 달라는 음식점 주인에게 그 허름한 행색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처럼, “무전여행을 귀엽게 봐주는 세월은 이미 지나갔”던 것이다.<sup>54)</sup> 주인공의 무전여행은 서울생활의 피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지만, 무전여행 그 자체도 피로의 또 다른 연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여행이 나에게 결코 유쾌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실상 나는 서울에서 늘 피로하고 지쳐 있었다. (중략) 그러나 내가 정말로 지친 것은 내가 지루하다고 느껴온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그때 이후로 이런

54) 홍성원, 「무전여행」(1968), 『주말여행』, 42쪽.

사람들을 존경하기로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지쳐 있는 것은 백조새끼가 오리들 틈에서 지쳐 있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번거로워 떠나온 이번 여행 역시 나를 지치고 번거롭게 하기는 마찬가지다.”(49쪽) 젊음은 특유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덕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끈질 연결되고는 하지만, 홍성원 소설에서 젊음의 가능성이란 오히려 사회의 시선에서는 다만 의혹과 불신, 제재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은 심지어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범죄와도 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이다. ‘나의 스물세 살이라는 나이가 갖는 젊음의 상징적 의미는 소설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될까. 스물세 살. “요즘 같은 세월에는 가장 재수 없는 어중간한 나이. 장차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내일쯤은 운수 사납게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 나이. 군대를 갈까 자살을 할까, 그러나 두 가지 다 공상만으로 그치는 나이. 경찰서 보호실에 들어가서도 우리들은 가장 흉한 대접을 받곤 한다. 서너 살만 덜 먹어도 주먹따귀 네댓 개 정도로 간단히 훈계 방면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스물에서 서너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주먹따귀를 맞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고, 정식 구속을 당하기에는 가장 어린 나이였다. (중략) 왜 우리 스물세 살들은 이렇게 아무 쪽에도 붙여주지 않는 것일까?”(52~53쪽) 젊음은 생물학적으로는 비교적 확실한 연대이지만, 젊음 특유의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덕택에 도무지 그 나이와 정체를 짐작할 수 없는 무정형이기도 하다. 젊음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나이인 것이다. 이러한 무정형의 젊음을 유일하게 호명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군대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음의 아픈 처지를 단적으로 환기한다. 젊음의 가능성이란 그 가능성을 규율과 제약과 구호와 호령으로 축소시키는 조직으로 흡수될 운명에 처하는 것이다. 젊음=여행=모험의 등식은 홍성원 소설에서는 이처럼 한낱 가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러한 가치판단이 젊음에 대한 성급한 가치절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설에서는 보기 드물게 바다와 해저를 직접 탐사하는 실감이 살아있는 「무전여행」에서 ‘나’와 김가가 사내의 제안으로 폭풍에 의해 난파된 침몰선에서 “풀어진 머리털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치 섬세한 해초 문치”(70쪽)처럼 머리가 풀린 여인들의 시체들 사이를 오가며 귀중품을 습득한다는 행위는 언뜻 젊음에게 주어진 모험의 형식처럼 보인다. 게오르그 짐멜은 모험은 청년기의 삶의 특권적 체험이라고 적었다. 청년은 모험, 즉 “그 무엇보다도 사물의 정상적인 운행으로부터 이탈한 첨예한 체험 안에서 삶의 흐름에 충만한 에너지를 감지한다. 하지만 이 체험은 삶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내던진 이 모든 삶, 그리고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같이 커다란 대조는 오로지 모험과 낭만주의 그리고 청년기에 존재하는 것 같은 삶의 과잉과 방종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sup>55)</sup> 그러나 「무전여행」에서 모험은 정확히 짐멜이 말한 것과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과잉과 방종의 체험’이 아닌, 일을 제안한 사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져온 사태처럼 죽음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무정형의 스물세

55) 게오르그 짐멜, 「모험」,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새물결, 2005), 220쪽.

살은 결국 “재수 없는 스물세 살. 얼른 서른 살쯤 되었으면”(77쪽)이라는 자탄(自嘆)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의 섬에 고립된 그들의 처지는 소설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인상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물은 너무 멀고 우리는 지금 형편없이 지쳐 있다. 서울에서 지쳐 있듯이 바다 위에서도 지친 것이다.”(같은 쪽) 「늪」과 「무전여행」과 같은 피카레스크 형식의 젊음의 모험과 일탈, 세상에 대한 야유는 중편소설 「주말여행」(1970)처럼 이미 소시민으로 사회적 질서와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된 남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골의 술집 작부들과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유희와 일탈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원의 소설은 사회심리적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거나 사회에 의해 강제적으로 회수되는 젊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가치절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젊음을 불모로 만드는 사회와 풍속과 에토스의 변화와 타락에 민감하다. 홍성원의 1960년대 장편소설 몇몇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4.

젊음은 선택과 선택 이전의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존재다. 젊음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유예와 미룸에서 비롯되는 현기증 나는 자유를 누리기도 하겠지만, 삶의 매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선택과 자유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서 삶의 한 가지 형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며, 선택한 것 이외의 다른 것은 결코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젊음이 겪는 실존적 흔들림은 현기증 나는 자유 그 자체일 텐데, 홍성원 장편소설에 구현된 젊음은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회화를 부러 미루는 나이 들었지만 치기어린 젊음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선택을 결단하고 결정하기까지의 현기증 나는 고뇌를 앓으면서도 선택한 삶의 형식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견실한 젊음이다. 이미 『디데이의 병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한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 회의주의적이고도 비판적인 거리를 두려는 현중위에게는 삶의 결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 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는 너그럽고도 강단 있는 친구인 구대위로부터 일종의 삶의 행동철학을 배운다. 그것은 “택한 뒤에는 불안이 없어! 강행군만이 있네…… 불안은 택하기 전에 있었지.”<sup>56)</sup>와 같은 구절로 단적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군인 특유의 행동주의와 주의주의의 고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에 스스로 결단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는 태도다. 『디데이의 병촌』에서 다르게 보면 숨 막힐 듯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개방하는 속도감 있는 단문과 짧은 대화는 이러한 남성적 결단과 의지가 육화한 소설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택과 자유의 아포리아는 『막차로 온 손님들』에서도 여전히 소설의 핵심적 모티브이다. 결혼적령기를 넘긴 서른 넘은 세 명의 청년과 그들에게 각각 우연히 찾아든 세 명의 여인이 연애를 하는 스토리를 갖추고

56) 홍성원, 『디데이의 병촌』(1964)(일신서적출판사, 1994), 181쪽.

있는 이 소설에 대해 김주연은 표면상 통속소설적인 부도덕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 소설의 묘한 매력을 언급하고 있다.<sup>57)</sup> 이러한 매력이란 아마도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자 노력하는 세 젊은이 각자의 삶에 대한 분투 그리고 그들 사이의 우정 즉 '인간적 결속'에서 오는 미덕이 아닐까 싶다. 이들의 삶에 느닷없이 여인이 찾아들었다는 플롯의 설정은 소설의 결격사유로 지적되는 우연적 구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삶의 선택과 자유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장치다. 마약 밀매상인 외국인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에어 걸(스튜어디스)과 인연을 맺게 된 동민, 자신의 히스테리 여성 환자와 사랑에 빠진 경석,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맹인 여성과 연을 맺은 충현에게 삶은 무정형이 아니라, 결단과 선택에 직면하도록 강요 받는 무엇이 된다.

주사위가 던져지고 길이 정해진 것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 중에서 무언가를 택한다는 이야기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했을 때 남은 한 가지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선택되지 않은 것에 무관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는 선택된 것보다 선택되지 않은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내 손에 쥔 떡보다 남의 손에 쥐인 떡이 더 커 보인다. 죽음을 택하고 죽음과 가까이하자, 삶이 좀더 짙은 색깔로 증오를 보이는 것이다. 선택된 것을 사랑하는 농도가 선택되지 않은 것의 증오보다 약할 줄이야! ……하지만 불안이 사라진 것은 고마운 일이다. 선택하기 전에 그는 무서운 자유를 경험했다. 해야 할 의무도, 가야 할 방향도 없는 자유. 자기 혼자 길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만 주어진 자유. 그는 이런 자유 속에서 꽤 오랫동안 불안했다. 옆에서 커다랗게 명령을 해 준다면, 어떤 거창한 의무가 그에게 두껍게 씌워졌더라면 그는 얼마나 즐겁게 그런 속박을 감사했을까?<sup>58)</sup>

아내와 반강제적으로 결별을 당하고 삶의 허무감에 지독하게 빠져 있는 전직 권투선수 충현이 자살을 결심하고 간만에 연락이 된 갑부인 아버지의 호출을 따르지 않고 맹인여자와 동숙하는 쪽을 선택하는 정황을 서술한 인용문은 동민과 경석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의사인 경석에 의해 치명적인 육종(肉腫)으로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는 선고 받고 죽음에 대한 자의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던 동민이 기적적으로 육종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삶에 대한 의욕을 갖는 대목이 나온다. “죽을 염려가 없는 대신 살아야 할 미래가 있다. 아마 이 미래는 노름에서 딴 돈과 같을 게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나 어차피 써야 할 돈이다. 하지만 무슨 재주로 그는 이 돈을 다 쓸까? 아무 계획도 보람도 없이, 더구나 조용한 시민으로…….”(134쪽) 『막차로 온 손님들』에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작품 전체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덜 유기적이긴

57) 김주연, 「홍성원의 두 소설에 대하여」, 『홍성원 깊이 읽기』, 146쪽.

58) 홍성원, 「막차로 온 손님들」(1966), 『한국문학전집 33권: 홍성원 김용성 편』, 128쪽.

하지만 마약밀매를 결혼이라는 인륜적 형식을 통해 행하려는 에어 걸 보영의 외국인 남편이나 갑자기 졸부가 되어 엄청난 돈을 아들에게 제공하는 충현의 아버지와 영화배우의 명성을 얻고 남편을 멀리하는 충현의 아내, 공장을 운영하지만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환자로 위장한 세정을 둘러싼 친인척과 공장장의 면모를 통해 사회의 타락한 풍속과 가치관의 혼돈을 환기하고 있다. 김주연이 지적한 것처럼 세 청년과 여성들을 둘러싼 실존적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적 결속'과 유대는 홍성원의 작가적 자세의 아름다움으로<sup>59)</sup>, 이러한 소설적 주제의식은 마치 헤밍웨이의 단편인 「살인자들 *The Killers*」(1927)의 하드보일드 스타일과 무뎉뎉하면서도 많은 정황과 감정, 심리를 담고 있는 즉물적인 대화를 다분히 연상시키는 장편소설 『역조』에서도 반복된다. 『막차로 온 손님들』에서 삶에 대한 열정과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소중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젊고 생각이 많은 도시인들의 맞은편에 『역조』의 거칠지만 그들 나름의 삶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범범죄자들이 서 있다. 『역조』는 뱃사람인 두 청년이 바다와 부두, 섬을 둘러싸고 벌인 살인사건과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 마침내 비극적인 파국과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다. 장편소설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홍성원의 소설의 뚜렷한 주제의식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타락한 사회와 풍속의 가치변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적 신뢰와 믿음, 결속에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비록 기존사회의 질서와 도덕과 법과 충돌할 경우라도 또 기어코 패배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이 된다. 홍성원은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에 이긴 사람만 조명(照明)할 뿐이지, 비록 패배하고 좌절하더라도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작가다. 비록 지더라도 멋있게 지는 법을 알고, 지든 이기든 어떻게 싸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만 남자들만의 고압적인 명예와 부담스러운 자존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작가적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역조』에서 피카로 즉 악인(惡人)에 해당하는 두 청년에게 범죄와 가느다란 선으로 은밀히 연결된 경찰의 질서와 법이란 뱃사람으로서 살아온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락과 혼돈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두식이라는 주인공의 의식을 대변하는 서술자의 자유간접화법으로 논평하는 사회와 인간의 모습은 이러하다. “남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세상에서 어려운 이야기다. (중략) 법이나 하나님 같은 것은 두식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어시장의 장사꾼들이 조합을 믿듯이 이들은 자기들대로 자기들 법을 믿는 것이다. 만일 이들에게 그런 법이 없다면 이 부두는 하루 저녁에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아마 뱃사람 반수 이상이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다.”<sup>60)</sup> 사람 사이의 믿음과 그러한 믿음을 통해 유지되는 질서는 주어진 기성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 질서라기보다는 사람살이의 인륜적인 질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헤겔과 같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애정의 협약이라고 할 만한 인륜적인 의식은 고차원적으로 국가와

59) 김주연, 「홍성원의 두 소설에 대하여」, 147쪽.

60) 홍성원, 『역조』(창우사, 1966), 36~37쪽.

사회의 기틀이 되는 법으로 거듭나야 마땅한 것이지만, 때로는 국가의 법과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범죄가 되기도 한다.<sup>61)</sup> 두식에게는 “뭘 믿어도 철저하면 믿으면 난 그놈을 신용할 수 있다. 제일 미운 놈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서 양쪽에 모두 알랑대는 놈”(433쪽)이라는 생각은 그 자신의 삶과 질서의 기초다. 그러나 두식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알랑땀과 간계, 배신이야말로 혼돈과 무질서의 근원이며, 따라서 소설에서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를 체현하는 인물들은 주인공을 결국 배신하거나 그렇게 배신자가 된 그들은 다시 주인공들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그리고 주인공들 역시 그들을 살해한 범죄의 대가를 마지막에 와서 혹독히 치르게 된다. 악인의 등장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서 홍성원은 소설의 「후기」에 적은 말을 빌리면, “설혹 그 질서가 악을 바탕으로 했어도” “이 혼란이 방치된 곳에서는 어떠한 의의(意義)도 정립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442쪽) 이것이 홍성원 소설의 요체를 이루는 ‘대결과 패배의 미학’이다.

## 5.

홍성원 소설에서 강조하는 ‘질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성문화된 법과 제도적 질서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근간이 되는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와 연대의식,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에서 비롯되고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사실 『디데이의 병촌』에서 주인공인 현중위가 전쟁의 비극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민군 남편들이 전사하면서 생긴 군부대 주변의 과부촌에 대해 다른 이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인민군 장교의 아내였던 선경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 가졌던 깊이 있는 이해심과 공감, 사랑에서 짝뿔던 문제의식이 성숙하고 발전한 결과다. 그렇다면 홍성원의 소설에서 지금껏 보아왔던 무정형의 젊음이 가치관의 혼란과 풍속의 타락을 체현하는 성(性, sexuality)의 어둡고도 유혹적인 측면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섹슈얼리티 또한 한 개인의 주체성의 형성, 성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정형의 젊음과 이 소설에서 그러하듯이 사회적 질서의 위반으로서의 성의 절합(節合, articulation)의 양상은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적이기도 할 것이다. 『가을에 만난 여행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추구하고 있는 소설로, 비록 길의 크로노토프를 중심으로 한 애초의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작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의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풍속화로서의 성의 여러 면모에 대한 탐구로 전환되면서 다소 께진하지 못한 방식으로 마무리된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1960년대 홍성원 소설에서 젊음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풍속에 대한 시각의 결합을 제법 의욕적인 방식으로 시도한 소설이기도 하다. 『가을에 만난 여행자』는 소설에서 내내 ‘청년’으로 불리는 가난한 의대휴학생 한우경과 김도민의 정부(情婦)이자 프랑스로 유학경험이 있는

61) 헤겔의 『법철학』(1820)에 의하면, 인륜성과 법적 질서, 가족과 국가 간의 갈등은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안티고네』에서 죽은 오빠의 장례를 치른 안티고네와 장례를 법으로 금지한 국왕인 크레온 사이의 갈등으로 육화된다.

부유한 성낙희가 우연찮게 길에서 만나 인연을 맺고, 청년이 성낙희를 통해 성이라는 심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서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소설은 발작적인 간질 환자였던 성낙희의 우연찮은 죽음과 성낙희와 김도민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성의 비밀스러운 공동체의 파국으로 끝난다. 소설은 홍성원의 다른 피카레스크 소설답게 길 한가운데서 시작하는데, 목적 없는 무전여행을 끝내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던 청년을 성낙희가 자신의 차로 태워주면서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시작된다. 소설은 젊음을 그전의 홍성원 소설과는 다소 다르게 인식의 각성을 동반하는 성숙의 체험으로 묘사한다. “사람에게 나이가 젊다는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청년은 이 젊다는 재산을 지금 대단히 유용하게 즐기고 있다. 아마 그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자기의 젊음을 의식 못하리라.”<sup>62)</sup> 이것은 청년이 언젠가 시골역의 무개화차 위에서 노숙할 때 느꼈던 비전의 충만함과도 연결된다.

신문지 두장을 등밑에 깔고 팔벼개를 한 청년의 시야에 구월의 깊고 차가운 밤하늘은 너무 아깝고 슬픈 것이었다. 그는 하늘에 흩어진 별들이 비로드에 뿌려진 은가루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화차가 멎어있는 시골역은 너무 고요해서 귀가 멍멍했다. 사실 밤하늘은 너무 오래 쳐다보면 마치 자기 눈이 하늘 속으로 빨려드는 기분이다.(중략) 그는 시골의 신작로가 얼마나 먼가를 알고 있다. 하루 원종일 도보로 걸어봤자 그는 고작 백리를 걸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하루를 소비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걸어온 거리는 벽에 걸린 한국 지도상에는 얼마나 크던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새끼 손가락만한 작은 반도. 아무리 커다란 세계 지도라도 한국반도는 새끼손가락을 넘지 못한다. 한데 이 한반도를 새끼손가락만큼 작게 보이게 하는 지구는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비교해서는 역시 좁쌀만한 작은 점이었다. 결국 나는 무한히 넓은 하늘이라는 공간 속에, 태양이라는 불덩이 속에서 역시 좁쌀만큼 떨어져 나온 지구 속에, 그 지구의 유라시아 대륙 새끼 손가락만한 작은 반도에, 그 반도의 들과 산속에 묻힌 작은 시골 역사 속에, 그 역사의 넓직한 구내 뚜껑이 없는 화차 속에 누워 있는 것이다. 허지만 그렇게 작은 그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가 우주를 안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나는 비록 우주 속에 먼지처럼 작은 존재지만 그리고 비록 우주의 나이에는 내 생애가 너무나 짧지만, 그러나 그 작고 짧은 존재가 우주의 비밀을 잠시나마 엿보았다. 바로 이 화차위에 누워서 우주의 호흡을 엿들었으며 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우주의 비밀을 엿보았던 것이다. 아아, 이런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다행인가! (중략) 그날 이후로 하늘을 볼 때마다 청년은 자기가 인간임을 사랑했다. 동물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그 작은 인간은 아직 나이가 젊다는 것, 적어도

62) 홍성원, 『가을에 만난 여행자』 제 3회 (지방행정, 1969), 171~72쪽.

앞으로 오십년 동안은 하늘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동안 가급적 같은 인간들과 싸우지 않고 살기로 하자는 것…….(3회, 172~73쪽)

위의 묘사는 비록 다소 소박해보이더라도 순간적인 인식적이고도 감각적 각성과 비전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경험하는 일종의 에피파니(epiphany, 顯現)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만 감각적, 인식적 각성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전이기도 하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작은 먼지 같은 존재'로 체감하는 자신이 다시금 '우주의 호흡'을 엿듣고 '우주의 비밀'을 엿보는 숭고한 역량을 가진 인간이며,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인간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인간들과 싸우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행위에는 도덕적 비전까지 드러난다. 찰스 테일러에 의하면, 이러한 "에피파니를 실현하는 것은 도덕적 원천과의 접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의 모범적인 사례다. 에피파니는 우리가 어떤 것과의 접촉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이런 접촉은 정신적으로 중요한 실현이나 완전성을 강화한다."<sup>63)</sup> 그러나 이러한 각성은 타자의 성과 본격적으로 접촉하면서 흔들리게 된다. 부둣가의 여관에서 청년과 여인(성낙희)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두 사람의 성적인 결합은 인식과 도덕적 세계관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다. 청년이 "사람에게 최소한 규범과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이 네발짐승과 구별되는 이유"라고 말한다면, 여인은 "양심이라든가 윤리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해낸 제약"이며, 사실 그러한 인간이란 "머리로만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꿈을 꾸지만 육체로는 동물과 다름없는 직선적인 본능을 구사"하는 "동물과 천사의 중간 존재"인 것이다.(8회, 197쪽) 여인의 이러한 인식은 유부남인 김도민과 그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과의 밀월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설에서는 다소 의아하고 어디에선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이들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가 실제적인 남녀관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이다. 청년과 여인의 만남 또한 김도민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은 그러한 묵인을 불편해하고 그에 대해 도민과 여인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여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그때 청년이 여인과 도민에게 하는 말들은 그 자신이 언젠가 겪었던 에피파니 경험에서 비롯된 도덕적 세계관의 유연함에 비해 대단히 낡고 고루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여인과 도민의 말 또한 청년에게 비현실적이고도 공허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의 관계와 갈등의 양상은 그들이 안양에 있는 맹인 노인과 노인의 동거녀이자 청년의 누이의 친구이기도 한 민여사와의 만남 속에서 한층 심화된다. 청년과 여인의 대립은 다시 청년과 노인의 대립으로 변주되는데, 이러한 대립적 변주는 노인이 인부를 시켜 처녀였던 민여사를 강간하게 만든 것이 그녀에게 오히려 삶의 각성의 계기

63) Charles Taylor, "Visions of Post-Romantic Age"(chp. 23),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425.

를 마련해준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때 최고조에 이른다. 청년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습관에 의한 질서”이며, “습관에 의해 피해를 받는 쪽보다는 이익을 얻는 바가 더 많”다고 말하는 반면, 노인은 인간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착해서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부단하게 어떤 제약이나 구속을 받아서라고 생각”한다.(11회, 160쪽) 그들의 대화는 법과 교육처럼 인간을 문명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길들여지는 습관의 동물이 되게 만드는 제도에 이르는데, 대화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천사쪽보다는 동물에 더”(12회, 171쪽) 가까운 존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청년 자신이 정작 여인과의 성행위를 통해서도 전혀 다른 종류의 에피파니(에로티즘)를 체험하는 동시에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학생은 문득 자기 자신의 몸뚱이마저도 이 기괴한 색깔 속에 용해되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정사를 할 때와 비슷한 즐거움이었다. 모든 사물이 한 덩이가 되어 자기 몸까지 흡입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여인 쪽을 돌아보았다. 여인의 얼굴이 푸른 달빛 아래 하나의 꽃처럼 화사하게 솟아올랐다. 머리를 싸맨 갈색 스카프가 그녀의 얼굴을 유난히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이 없고 코와 입과 요철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아메바가 직립한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학생의 체내에 이상한 욕정이 쏟아져 올랐다. 그는 자기와 여인의 존재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가변적인 아메바로 보였다. 그것은 질은 농도의 액체로 어떤 용기에나 자유자재로 용해되는 것이었다.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그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개의 아메바!(12회, 173쪽)

이것은 청년 자신이 여인과 옹호해왔던 금기와 질서를 스스로 위반한다는 데서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 또는 “조그만 죽음”으로서의 에로티즘<sup>64)</sup> 체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체험 직후에 청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인은 급작스러운 간질발작으로 인해 물에 빠져 죽게 된다. 『가을에 온 여행자』는 이러한 파국 속에서 막을 내리지만, 작가는 청년과 여인, 질서와 질서의 위반(무질서) 그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볼 때 건강함과 단순함, 질서에 대한 열망이라는 작가의 세계관을 놓고 보면 소설에서 서술자(작가)는 청년의 편에 가깝게 보이지만, 위와 같은 에로티즘의 체험을 통한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에 이르면 여인과 도민, 노인과 민여사의 세계를 다만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풍속과 에토스의 타락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글이 내리는 잠정적 결론에 따르면 1960년대 홍성원의 소설에서 젊음은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실존이다.

64) 조르주 바타유,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민음사, 1989), 9쪽, 191쪽.

여 백

## 한국근대사의 총체적 형상화

### - 홍성원의 역사소설 연구

이승준(한국한공대학교 교수)

여 백

#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 형상화

## -홍성원의 역사소설 연구-

이 승 준 (한국한공대학교 교수)

1. 서론
2. 총체적 형상화의 구조
  - 1) 균등한 화소의 배열
  - 2) 평범한 인물의 전경화
  - 3) 목소리의 독립적 병치
3.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 형상화
4. 결론

### 1. 서론

홍성원(洪盛原)은, 1964년에 「빙점지대(氷點地帶)」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기관차와 송아지」가 『세대』 창간 일주년 기념 문예공모에 당선되며, 『디데이의 병촌』이 동아일보 50만원 고료 장편 모집에 당선됨으로써 화려한 등단을 하게 된다. 이후 2008년 5월 1일 작고하기까지 그는 30십여 년간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폭군(暴君)」, 「무사와 악사」, 『마지막 우상』, 『그러나』 등의 문제작과 『남과 북』, 『달과 칼』, 『먼동』 등의 대하장편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실로 다양하고도 풍부한 문학세계를 보여주었다. 홍성원은 김승옥, 이청준과 더불어 1960년대에 등단한 대표적 소설가라고 할 수 있다.

홍성원은, 김승옥을 제외한 동시대 다른 작가에 비해 일찍 문단에 나와 커다란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 비해 덜 주목받아 온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서사 장르의 모범이라 할 만한 구성과 문체를 가지고 진지하게 세상과 맞서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에 대하여 너무 홀대했'<sup>65)</sup>다는 홍정선의 반성적 고백은 공감할 만하다. 홍성원의 소설이 그의 문학적 성

65) 홍정선, 「대담-자신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러나'라는 질문」, 『홍성원 깊이 읽기』, 문

과에 비해 덜 평가된 데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sup>66)</sup> 그가 특정 문학 그룹에 소속되거나 특정의 문학적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60년대에 김승옥이나 이청준이 「산문시대」와 「68문학」의 공식 멤버였는데 반해 홍성원은 그 방계에 속하는 작가였으며, 평단이 크게 양분되었던 70년대에 그는 어느 쪽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기 힘든 작가였고, 민중문학이 위세를 떨치던 80년대에 민중문학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현실비판의 문학을 펼치는 작가였기에, 그는 항상 평단의 쟁점에서 조금 물러난 자리에 있었다.

홍성원의 이러한 위치는 그의 문학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홍성원의 소설세계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은 대체로 리얼리즘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병익은 그의 소설을 ‘진실 발견적 리얼리즘’<sup>67)</sup>이라고 명명한다. 김병익은 “단순히 사회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명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발자크류의 고전적 사실주의와 다르고 강령으로 요구하는 이상주의를, 바로 그 이상주의가 인간을 각질화시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거부함으로써, 그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거부한다. 그의 리얼리즘은 그러니 진실 발견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이다. 홍성원은 어떤 문학 이념을 추수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현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홍성원의 역사소설은 그의 이러한 문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홍성원은 두 편의 대하역사소설을 남겼다. 『달과 칼』과 『먼동』이 그것이다.<sup>68)</sup> 『달과 칼』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역사소설이다. 이 소설은 홍성원이 쓴 최초의 본격 역사소설로 그의 다른 대하역사소설 『먼동』의 토대가 된다. 홍성원은 『달과 칼』의 문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먼동』이라는 보다 완성도 높은 대하역사소설을 쓴다.<sup>69)</sup> 홍성원은, 『달과 칼』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깊이

학과지성사, 1997, p.21.

66) 이광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엄청난 작품 양(量)에 비해 작가론이나 작품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한 가지 뚜렷한 주제나 경향을 갖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70년대처럼 평단이 두 갈래의 흐름으로 갈라져 있던 상황에서 그 어느 쪽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기 힘든 작가였다. 또한 홍성원의 작가론이나 작품론이 비평가들에 의해 기피되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간 경향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의 작품을 일일이 읽어야 하는 부담 때문이기도 했다.”(이광훈, 「조직의 힘과 개인의 해체」, 『문예중앙』, 1982, 가을호, p.291.)

67) 김병익, 「진실의 발견과 장인정신」, 『현대문학』, 1994. 11, p.332.

68) 홍성원은 대구매일신문에 1985년 6월 1일부터 1988년 6월 2일까지 3년여 동안 총 924회에 걸쳐 『달과 칼』을 연재 마감한다. 1993년에 한양출판사에서 총 5권으로 출판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신서원에서 다시 총 5권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서원본을 결정판으로 보고 연구 텍스트로 삼기로 한다.

69) 『먼동』은 동아일보에 1987년 9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1120호로 연재 마감되었다. 『먼동』은 1991년 동아일보사에서 총 5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다시 문학과지성사에서 1993년 총 6권으로 출판되었다. 『먼동』은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KBS에서 1993년 4월 24일부터 1994년 4월 16일까지 총 50회로 방영되었으며, 1994년 4월 23일, 30일 이틀 동안 종합편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과지성사본을 결정판으로 보고 연구 텍스트로 삼기로 한다.

탐구하고 있으며, 『먼동』에서는 구한말에서 한일합방을 거쳐 3·1 운동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에 다양한 계층의 우리 민족 성원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사실적으로 그린다. 그런데 홍성원의 역사소설의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의 또 다른 대하소설 『남과 북』<sup>70)</sup>을 간과할 수 없다. 『남과 북』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자체로 역사소설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달과 칼』이나 『먼동』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홍성원의 대하소설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남과 북』은, 『달과 칼』, 『먼동』 뿐 아니라 미완의 대하소설 『수적(水賊)』<sup>71)</sup>의 양식적 틀을 제공하며, 내용면에서도 이들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근대적 사회변동이라는 역사적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달과 칼』이나 『먼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변동의 문제는 『남과 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달과 칼』이나 『먼동』을 중심 텍스트로 놓고, 『남과 북』을 보조 텍스트로 삼아서 홍성원의 역사소설이 그리고 있는 방대한 문학세계를 탐구해 보고자한다.<sup>72)73)</sup>

## 2. 총체적 형상화의 구조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학적 장치에 의해서 거대한 역사적 사건

70) 『남과 북』은 「육이오」라는 제목 아래 월간 『세대』지에 1970년 9월부터 1975년 10월 까지 5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총 62회 연재되어 완결된다. 이 작품은 1977년 서음출판사에서 총 7권으로 최초 출판되었다. 이때 제목이 『남과 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후 이 소설의 제목으로 확정된다. 1982년에는 대호출판사에서, 1983년에는 중앙서관에서 총 7권으로 다시 출판된다. 1983년 판본의 경우 발행처는 도서출판 성한으로, 제작공급은 중앙서관으로 되어있다. 1987년에 문학사상사에서, 2000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총 6권으로 개정 출판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과지성사본을 결정판으로 보고 연구 텍스트로 삼기로 한다.

71) 홍성원은 『먼동』 이후 『수적』을 서울신문에 1991년 4월 1일부터 1992년 9월 28일까지 총 266회 연재한 바 있으나, 이 작품은 신문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도중에 연재 중단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먼동』은 홍성원의 마지막 대하장편소설이 되는 셈이다.

72) 이런 점에서 홍성원의 역사소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편소설 『그러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달과 칼』이나 『먼동』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먼동』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는 『먼동』에서 발생하는 한일 관계의 문제에 대한 논평적 해결을 모색하는 소설이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본다면, 홍성원이 역사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전모를 살펴보려면, 『달과 칼』이나 『먼동』과 함께 『남과 북』과 『그러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홍성원은 홍정선과의 대담에서 자신이 가장 애정을 가진 작품으로 『남과 북』, 『먼동』, 『그러나』, 『달과 칼』을 꼽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가 가장 애정을 가진 작품으로 이 네 작품을 꼽은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의식적인 지적은 아니겠지만, 그는 이 소설들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주제를 담고자 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그러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홍성원·홍정선, 「대담-자신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러나'라는 질문」,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3, p.47.)

73) 홍성원, 「대담-자신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러나'라는 질문」, 『홍성원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7), pp.46-47.

의 전체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체로 『남과 북』에서 선취하여 『달과 칼』과 『먼동』에 적용되는데, 특히 『먼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홍성원은 “사관(史官)들이 빠뜨리고 건너편 역사 기록 사이의 좁은 행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74)</sup>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이러한 문학적 장치에 의해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1) 균등한 화소의 배열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은 많은 화소<sup>75)</sup>들의 균등한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화소와 화소 사이에는 한 칸이 띄워져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며, 그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의 설명도 없다. 이것은 시퀀스<sup>76)</sup>의 배열에 의해 형성되는 영화의 구성과 흡사하다. 이 소설은 전후 관계의 설명을 생략한 채 수많은 화소들을 배열하여 독자에게 제시한다. 이렇게 배열되는 화소들의 계속적인 진행 과정에서 사건들이 병치되어 벌어진다. 여기서 발생한 사건들은 대체로 균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어떠한 특정 사건을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사건의 중요도는 해석의 문제와 관련된다.

『달과 칼』은 화소의 배열을 통해 다섯 개의 커다란 사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다섯 개의 사건은 각각 다른 공간에서 병치되어 독립적으로 벌어지는데, 이를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인물	계급	공간	주요 사건
1	서복만, 서수만, 막개, 울개, 이강득	상민 천민	순천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	남해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투
2	사발, 자산, 박두산, 달이, 짝쇠, 최언필, 형수	승려 상민 천민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과 황새등 골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일대	최언필의 가족적 갈등과 두 차례의 진수성 싸움
3	김찬홍, 김인홍, 윤씨, 연이(노비)	양반 서출	서울, 경기, 황해도 일대	성기준의 기이한 행적과 성인육과 옥섬의 불륜의 사랑
4	한덕대, 조행수, 이씨, 분동, 금홍(어진)	상인	대구, 서울, 과천	금홍-한덕대-이씨의 애정 관계, 전쟁 중 상인들의 상거래와 상단의 변화
5	성기준, 성인육, 옥섬	중인	서울, 경기 일대	적서차별의 문제점과 양반 사회의 균열상

74) 홍성원, 「동트기 직전 새벽은 더 어둡다-연재소설 『먼동』 대장정을 마치며」,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91. 2. 28.

75) 화소 혹은 모티프(motif)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고안하고 구조주의자들이 세련한 개념으로 서사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오타번·이남호, 「플롯의 사건과 배열」,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p.47-51.)

76) 연속 순서라는 뜻에서 시나리오에 구성된 몇 개의 씬을 묶어놓은 단위를 시퀀스라고 한다. 즉 장면이 연속으로 일련의 구획된 부분을 의미한다. 커트는 씬을 구성하고 씬은 시퀀스를 구성함으로써 영화가 형성된다.(대한민국예술원 편찬위원회, 『한국 무용 연극 영화 사전』, 예술원, 1985, p.295.)

이와 같이 『달과 칼』은 다섯 개의 커다란 서사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 소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 소설은 다양한 성격과 계급의 인물들을 상이한 공간에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임진왜란의 다양한 면을 입체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드러내고 있다.<sup>77)</sup> 그런데 여기에서 서북만, 서수만, 막개 등의 인물이 남해안 일대에서 벌어지는 전투들은, 진주 일대와 지리산 황새등 골짜기에서 운수승 사발과 자산 그리고 짝쇠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서울을 배경으로 김찬홍 일가가 벌이는 사건은 대구 상단의 간부로 활동하는 한덕대 중심으로 벌어지는 조선시대 사회 변동보다 반드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먼동』의 화소의 배열을 통한 사건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먼동』은 김효순, 송근술, 박종학의 세 가계에 속한 인물들이 3대 혹은 4대에 걸쳐 벌이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송근술이 김효순의 서자이며 김현우가 송근술의 딸 쌍순(보경)과 김효순의 손자 태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효순과 송근술의 두 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두 가계의 인물들은 소설의 말미까지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 소설의 중심 서사를 구성한다. 김씨과 송씨 집안의 관계처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종학의 가계 역시 앞의 두 가계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 박종학과 인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하나의 중심 사건을 구성한다. 여기서 특히 인섭은 세 가계의 가교 역할을 한다. 『먼동』에서 화소의 배열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은 서로 교차하고 병행하며 분리되고 합쳐지면서 소설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소설들은 많은 균등한 화소의 그물코들로 짜여진 그물에 비유될 수 있다. 이 소설들은 화소라는 그물코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전체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 2) 평범한 인물의 전경화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에서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 소설의 시간은 대체로 역사적 사건과 일치한다. 『달과 칼』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1598년 종전 직후까지 임진왜란의 실제적 전란시기를 그대로 소설의 시간으로 채택하고 있다. 『먼동』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은 1901년에서 1919년 겨울까지 약 20년에 걸친 기간이다. 두 소설은 모두 공간 역시 역사적 사건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제 역사적 인물이 사건의 전

77) 그런데 이 소설은 이러한 다섯 개의 사건은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호 독립적으로 전개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 개의 사건은 임진왜란이라는 공통의 시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 이외에는 서로 연관을 맺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각기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균등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이 소설은 마치 다섯 편의 장편소설을 섞어 놓은 것과 같다.

면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소설의 전면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인물들이다.

『달과 칼』에는 약 20여명의 주요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양반, 서출, 중인, 상민, 천민 등 조선시대 모든 계급을 망라한다. 이 중에 임진왜란에 활약했던 권율, 신립, 유성룡, 이덕형 등과 같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은 없다. 의병이나 승병의 경우에도 김천일, 고경명, 곽재우나 영규, 유정, 휴정 등의 역사적 인물들은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그 이름과 행적만 간단히 소개될 뿐이다. 역사적 인물 중 오직 이순신만이 사건에 참여하는데, 그 역시 후경화되어 있는 부차적 인물이다. 이 소설에 양반으로부터 중인 평민 그리고 천민까지 다양한 계급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역사의 이면에 자리하는 평범한 인물들이다. 『먼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고종, 민영환, 안중근, 한용운 등은 이름만 언급되면서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반면, 박승학, 인섭, 보경(쌍순), 태환, 송근술 등이 전경화된다.

이들은 서사적 사건과 역사적 사건을 간접적으로 결합한다. 그럼으로써 역사적인 사건을 단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실제적인 삶에 밀착시킨다. 이는 루카치가 주장하는 '중도적 인물'과 비교해 볼 만하다. 루카치는 "역사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활동했던 인간들에 대한 문학적 환기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간적 동기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를 실제 역사적 현실에서의 경우와 똑같은 것으로 추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그리고 행위의 그와 같은 사회적 인간적 동기들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데는 외적으로는 사소한 사건들, 조그마한-외적으로 보기엔-관계들이 세계사의 거대한 기념비적인 드라마보다도 더 적합하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역설적이지만 곧 문학적 형상화의 분명한 법칙인 것"<sup>78)</sup>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소설은 공정하지만 결코 영웅적이지 않은 중도적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루카치가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인물들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은 역사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변증법적인 지양의 결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평범한 인물들은, 이 소설들이 권력층이 벌이는 정치적 사건이나 전쟁 영웅의 무용담에서 벗어나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전체상을 그릴 수 있게 한다.

### 3) 목소리의 독립적 병치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에서 인물들의 목소리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굴곡 없이 독자적으로 전달된다. 이를 위해 작가 자신의 설명보다는 많은 대화가 활용된다. 인물이 직접 말하게 함으로써 인물들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서로 상이한 생각들은 충돌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서 의미는 발생한다. 모든 말들은 동등한 지위

78)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이영욱 역, 거름, 1987, p.31.

로 충돌하기 때문에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지지만, 작가의 교묘한 솜씨를 통해 어떤 말들이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sup>79)</sup>

이러한 인물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 이 소설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면서도, 작가의 개입 없이 객관적 서술을 유지한다. 이것은 어떤 인물에 의해 초점화(focalization)<sup>80)</sup>된 서술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작가는 자신의 시점을 특정 인물의 시점과 일치시킨다. 그래서 작가는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작가가 아니라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물론 인물의 목소리 속에 작가의 목소리가 아주 미묘하게 개입되거나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는 모호한 경우도 있다.

아는 일종의 내적 초점화인데, 그것은 고정 초점화라고 할 수도 있고, 가변 초점화라고 할 수도 있다.<sup>81)</sup> 한 개의 화소 안에서는 여러 명의 인물에 대해 초점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화소 안에는 한 인물에 의해 초점화되든지 객관화된 서술이 공존한다. 그래서 독립된 한 화소만을 놓고 본다면 고정 초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설 전체를 두고 본다면, 화소에 따라 다른 인물에 대해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 초점화라고 할 수 있다. 정경묘사라든가 인물의 행동 묘사의 경우 객관서술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이 드러날 경우는 인물의 시점이 명확해지고 따라서 인물의 목소리가 분명해진다. 그런데 대개는 작가의 객관 서술인 듯 보이는 서술도 대개는 꼼꼼히 따져보면 작가는 인물과 같은 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양상은 서로 다른 역사의식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먼동』에서 문학적 효과를 발휘한다.

같은 동양 인종이건만 일본인은 조선 사람에 비해 너무나 강하고 건강하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들의 선진 문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세운 국민적인 뚜렷한 목표와,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과, 부정과 탐학을 용납지 않는 그들의 건강하고 정직한 국민 정신이 아름다운 것이다. 따지고 보면 조선은 무엇 하나 지금의 일본에 앞서는 것이 없다.<sup>82)</sup>

79) 가령 『남과 북』에서 문정길과 퇴임 목사 간의 대화는 서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충돌하고 끝을 맺는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가 문정길의 정신적 갈등 상황에서 회고된다는 점과 목사의 말을 떠올리며 남한 국회의원의 첩을 살려준다는 설정을 통해 퇴임 목사의 말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80) 제라르 주네트, 「초점화」,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pp.177-182.

81) 제라르 주네트는 초점화를 제로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고정 초점화, 가변 초점화, 복수 초점화로 나눈다. 고정 초점화는 초점화 변화 없고 한 인물에 고전된 경우이며, 가변 초점화는 『보봐리 부인』의 경우처럼 한편의 소설에서 초점이 변화는 경우이다. 『보봐리 부인』에서는 처음에는 샤를르에게 그 다음엔 엠마에게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샤를르에게 초점화된다.(위의 책, p.51.)

82) 홍성원, 『먼동』, 5권, 문학과지성사, 1993. p.184.

인섭이 요즘 들어 감탄하고 절망하는 것은 일본 경찰의 잔인성도 아니고 포악성도 아니고 사악함도 아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 일본을 위해 잡화점 상인에서 우체국 말단 직원과 밥 짓고 빨래하는 평범한 아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무서운 단결심과 열성으로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웃나라 조선을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만든 데 대한 도덕적인 반성이나 양심의 아픔이 전혀 없다. 국가가 결정하여 자기들에게 시책으로 하달한 이상, 아무런 회의와 양심의 가책 없이 오직 조국 일본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따를 뿐이다.<sup>83)</sup>

위의 두 인용문은 각각 보경과 인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양자의 내용은 모두 일본인의 국민성에 관한 것이다. 일본인의 국민성이 보경에게는 너무나 강하고 건강하며 아름답기까지 한 것인데, 인섭에게는 감탄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서술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서술자는 온전히 인물의 입장에서만 서술한다. 여기에는 작가의 개입은 물론 서술자의 논평도 없다. 서술자는 어떠한 태도도 노출하지 않으며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다. 모든 태도는 인물에 속하며 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이러한 서술 양상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시각, 특히 그들의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이러한 서술 양상은 특히 일반적으로 부정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인 친일 행위를 하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항일투사건 친일파건 동등한 정도로 인물의 입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3.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 형상화

한국사에서 근대의 기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회 경제 구조는 현저한 변동을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리 역사의 근대적 변화의 양상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변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양반 중심의 계급 제도의 균열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제도의 변화이다. 전자가 핵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종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달과 칼』은,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상세히 형상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과 더불어 발생하는 사회 변동의 조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양반 중심의 계급 제도의 균열은 지배 계층으로서의 양반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뢰와 권위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

83) 위의 책, p.149.

으로 양반도 상민이나 천민과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양반 중심의 계급 제도의 균열은, 인간은 모두 같다는 보편적 깨달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는 이러한 인식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내 이번 난리 중에 많은 것을 새루 깨우쳤다. 우리 조선이 부강하지 못한 것두 다 까닭이 있었던 게다. 사람이 몸뚱어리를 여러 개 갈라 보았다만은 나는 아직도 양반과 상놈이 어찌 다른지를 모르겠더구나. 반상의 차등, 귀천의 차등은 모두 사람들이 지어낸 어리석은 습속일 뿐이다. 왜적의 불길과 칼 앞에는 양반과 상놈이 다 같은 한목숨뿐이더라. 글 높은 선비라 해서 왜란을 당해 한 일이 무어나? 오히려 압제 받구 없이 살던 백성들이 낫 들구 도리개 들구 왜적을 맞아 곳곳에서 싸우지 않았느냐? 글과 선비들만을 하늘높이 숭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데 쓰이는 실물(實物)과 실세(實勢)를 크게 일깨워야 되리라고 생각한다.”<sup>84)</sup>

위의 인용문은 의원 성기준이 그 아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여기서 그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그는 양반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질적인 것에 닿지 못하고 허황된 형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양반에 대한 비판의 기저에는 궁극적으로 인간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깔려 있다. 양반도 평민이나 천민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계기가 “사람이 몸뚱어리를 여러 개 갈라 보았다”는 데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는 의술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특히 과학적 호기심에서 인체 해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과학자의 면모를 지닌다. 그를 인간평등이라는 보편 사상으로 인도한 것은 근대적 과학사상이다. 말하자면 그는 홍대용과 같은 북학과 실학자의 선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은 한덕대이다. 시전 도부꾼 소금장수 한덕대는 임진왜란 중에 상단의 간부가 되고, 몰락 양반의 딸 이 씨와 결혼함으로써 반상의 경계를 허무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는 아내 이 씨의 권고로 납속수직을 통해 양반을 산다. 한덕대가 양반이 됨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하여 그가 동생 분동과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형 한덕대가 양반이 되었지만 동생은 여전히 상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의 묘소 이장 문제가 거론될 때, 이러한 계급의 차이는 단지 형제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계 전체의 문제가 된다. 동생뿐 아니라 죽은 아버지 위의 모든 조상이 상민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걸 몰라. 그러니 내 너더러두 양반이 되리구 권치 않드나? 남들이 양반으로 보이주면 그제 바루 양반인 게다. 세상 있구 양반 생겼지, 양반 먼저 생기구 이 세상 생기는 않았니라. 네가 왜 그걸 모르구 까탈스레 양반을 싫다는지 모르겠구나?”

잠시 말이 없더니 분동이 한참 만에 고개를 든다. 매 맞은 엉덩이가 아파오는지 분동이 눈살을 찌푸리며 힘겹게 입을 연다.

“형님은 상사람이 양반 되는 것만 길이라구 생각하시우? 반상의 차등을 없애버리면 일

84) 홍성원, 『달과 칼』, 5권, 신서원, 2005, p.125.

부러 곡식 바쳐 양반 될 까닭이 없지 않소? 사람과 사람 간에 차등 있는 게 잘못이지. 우리가 상사람으루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 된단 말이오?”<sup>85)</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계급에 대한 형제간의 대화는 자못 심각하다. 한덕대는 동생에게 양반이 될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한덕대의 말에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서 양반은 태생으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선택적인 조건이다. 이는 의식 밑에서부터 조선 시대의 확고부동한 계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반상의 차등을 없애버리면 일 부러 곡식 바쳐 양반 될 까닭이 없지 않소?”라고 하는 분동의 발언은 여기에서 더 나간다. 그는 계급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는 것이다. 분동의 생각은 양반도 평민이나 천민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성기준의 인식과 그 바탕이 같다.<sup>86)</sup>

한덕대는 또 다른 점에서 근대적 속성을 지니 인물이다. 이 소설에는 임진왜란과 더불어 발생한 사회변화에 대해 계급적 혼란상 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도 드러나는데, 한덕대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상인 출신 한덕대의 최대 장점은 발이 빠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덕대는 조행수의 명을 받아 전쟁 중에도 전국을 돌며 상인으로 활약한다. 그 와중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과 더불어 발생하는 경제적 변화상이다. 이 소설은 한덕대와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금난전권을 행사하던 시전 상인 체제의 균열이 생기면서 난전이 성립될 조짐을 곳곳에서 보여준다.<sup>87)</sup>

『먼동』의 화소의 배열을 통한 사건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먼동』은 김효순, 송근술, 박종학의 세 가계에 속한 인물들이 3대 혹은 4대에 걸쳐 벌이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송근술이 김효순의 서자이며 김현우가 송근술의 딸 쌍순(보경)과 김효순의 손자 태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효순과 송근술의 두 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두 가계의 인물들은 소설의 말미까지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 소설의 중심 서사를 구성한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가정적인 차원에서의 적대적 대립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들은 이들 가문의 중심 인물인 영환과 태환, 송근술과 보경

85) 위의 책, p.253.

86) 이 소설에서 계급 갈등은 반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적서 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 인물은 김인홍과 최언필을 들 수 있다. 둘은 모두 서출이라는 출생의 한계에 대해 혼란에 빠져 있다. 김인홍의 경우 그가 적자 김찬홍의 아내인 형수 윤 씨와 혼거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급의 혼란상을 드러낸다면, 최언필의 경우 그 조카 짝쇠가 최 씨 가문의 혈통을 이어 받는다는 점에서 적서 차별의 해체의 조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87) 조선 전기의 시전 상업 체제에서,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통해 전매권을 행사하며 정부 수요품을 독점적으로 조달하고 그 공물과 조세의 잉여분을 처분했다. 하지만 16세기에 이르러 도시 상업인구가 늘고, 특히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드는 인구가 급증하여, 시전 체제는 위협 받게 된다.(강만길, 「이조후기 상업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8 참조.)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한덕대의 후원자격인 조행수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시전 상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반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물러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조행수가 육의전의 금난전권이 무력해지는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한덕대 역시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한덕대가 조행수의 부고를 듣고서 양반이 되기를 결심하는 대목은, 이러한 상인으로서 한덕대의 사회역사적 위치를 잘 보여준다.

(쌍순)의 행동과 역사의식을 규정한다. 영환이 일제에 항거하는 계기가 송근술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태환이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게 되는 계기가 그의 큰형 영환의 옥사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행동과 의식의 규정은 영환이나 태환보다 송근술과 보경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송근술이 일진회에 들어 친일을 통해 석유장사로 부를 축적하여 김 씨 가문의 장토를 사들이고, 보경이 일인이나 친일파 한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부를 축적하게 되는 심리적 근거가 바로 이 두 사건에 있다.

『먼동』의 경우 사회 변동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로 부각된다. 이미 변화의 물결이 드세게 몰아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사회 변화에 대한 인물들의 의식은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크게 구분한다면 양반 의식을 대변하는 김 씨 가계, 이에 상반된 의식을 지닌 송 씨 가계, 그리고 중인 의식을 대표하는 박 씨 가계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각각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 인물들마다 서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며 다양한 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양반의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김 씨 가문의 세 번째 주인 영환을 꼽을 수 있다. 김효순이나 상민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는 여전히 갑족 양반의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의병이나 독립군에 측면적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항일 의식의 저변에는 존왕양이(尊王攘夷)라는 조선조 양반의식에 뿌리박고 있다. 홍화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문을 익힌 태환은 반상(班常)과 적서(嫡庶) 귀천(貴賤) 등의 차등이 나라에 큰 폐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갑오경장 이후 제정된 노비제도 폐지와 사민평등의 신분계급 타파론을 생각하며 자기 집안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의식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개혁사상에 찬동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기존의 양반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환이 온전히 성리학적 이념에 뿌리박은 조선조 양반의식을 지녔다면, 태환은 표면적으로는 개화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조선조 양반의식을 지니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겠다.<sup>88)</sup>

송근술 집안은 김 씨 가문과 대척적 자리에 놓인다. 송근술은 철도공사장에서 막일꾼으로 일하면서 일본어를 익히고,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일진회에 들어 적극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이며 석유 공급 독점권을 얻어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그는 상승의 기회를 주는 일본을 개국이래의 고마운 은인이라 생각한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의식화한다. 일본과 석유가 그의 성장의 발판이라는 점은 홍

88) 태환은 쌍순에게 몸을 요구하면서, 그녀가 천출이 아니었다면 혼례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천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설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동학운동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민란이며, ‘야소교’는 이단적 사상이다. 종육품 산사까지 지낸 인섭의 부친이 왜 하필이면 장삿길을 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이유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정작 그를 괴롭힌 것은 자기 몸의 고통이 아니라 집안의 주인인 영환이 왜적에게 모욕적인 고문과 희롱을 당하는 것이다. 그가 소설의 말미에서 급격한 정신적 변모를 겪으며 독립운동에 투신할 결심을 하고 만주로 가는 이유도 죽은 큰형 영환의 뜻을 받든다는 데 있다. 태환이 조직한 계정회 회원들 역시 그의 이러한 역사의식을 공유한다. 계정회는 홍화학교 동료들의 모임으로 의병들의 군자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3·1 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분개하는 사건은 광무황제의 강제 퇴위이며, 이들이 가장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광무황제의 부름을 받아 군자금 모금을 권장하라는 옥음을 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신학문을 익히고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반일운동과 국권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적인 변혁을 겪지는 못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근대 사회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회를 개척해 나갈 만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미롭다. 그는 근대적 신흥 상인 계급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보경(쌍순)은 서양 선교사 그레이스 여사가 남긴 재산을 기반으로 일본인과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그녀가 부를 축적하는 근원적 수단이 왜식 여관과 요릿집 운영이라는 점에서, 그녀 역시 송근술처럼 근대적 상인 계급의 면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하고 당당한 자기 논리와 신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송근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그녀는 학교 설립이라는 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89)</sup> 무엇보다 보경의 의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그녀는 당위적 윤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 사고로 진실을 추구해 나간다. 그의 의식이 완결되는 지점은 미래에 있다.

이 소설에서 문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박승학이다. 박승학의 행적은 의병 활동에 집약되어 있다. 그는 이 소설이 시작하기 이전 병신년에 이미 한 차례 의병 거병을 한 바 있다. 을사조약과 한일신협약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 거병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두 차례의 의병 거병의 결과로 의병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많은 희생자를 남기게 되자 의병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된다. 박승학의 의병 활동은 당대 주류를 이루었던 양반 의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체로 의병의 무기는 현실적 고려에 앞서는 성리학적 의리에 대한 신념이다. 박승학에게 양반 의병들은 대세의 흐름에 눈이 어두워 과거에만 집착하는 복고적 이상주의자들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병 활동에서 양반을 철저히 배격한다.

박승학을 문제적 인물이라고 지칭한다면, 그것은 그의 의병 활동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의병 활동에서 실패한 지점에서 지니는 반성적 태도에 근거한다. 박승학은 의병을 거병할 때부터, 그것이 예정된 실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의를 안고 대의를 위해 거병한다. 그의 거병 결심은 대의멸친(大義滅親)이라는 도덕적 결단과 그것이 무모하다는 회의적 사고 사이에 놓인다. 하지만 거병 후 전사하는 자기 수하의 병사들과 일본의 초토화 작전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백성들을 보며, 그는 거병에 대한 회의는 더 커진다. 그것은 역사적 이상과 불합리한 현실 사이에서 생긴다. 박승학이 역사적 이상과 불합리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민족정신의 수호에 대한 신념이다. 그는 역사에 대해 회의하고 갈등하며 실천하는 문제적 인물이다.<sup>90)</sup>

이렇게 볼 때, 인섭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꾀하는 근대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흥화학교에서 신학문의 기초를 익히고, 경성의학

89) 보경의 의식은, 조선 양반들의 유교적 인습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다. 그녀는 천부인권사상과 남녀평등을 논변하기도 한다. 보경의 사고는 전근대적인 인습을 비판하며 합리적 근대 사회로 향하고 있다. 그녀에게 일본은 바로 근대적 모델이 된다. 그녀에게 일본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그녀가 소망하는 근대 사회의 한 모델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보경의 사고는 단순하지는 않다.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자기 조국의 백성들을 온전히 배반하고 있지도 않다.

90) 『남과 북』도 『달과 칼』과 『먼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동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우 씨 가계의 몰락과 박 씨 가계의 상승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동준의 병사, 우효중의 자살, 우효석의 총살은 모두 우 씨 집안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우효중의 '선영(先塋) 앞에서'의 자살은 경제적 몰락과 동시에 정신적 몰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에게 선영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 중에 '운명을 바꾼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잡은 박한익의 상승과 대조를 이룬다.

교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여 광제원의 양의원이 된다. 그는 대체로 온건한 성격을 유지하지만 단발령이 발표되어 조선인들이 모두 분개하는 때에 자의로 단발하는 과감한 행동주의자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개화승 동탄의 도움으로 서양식 병원을 개원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해 주는 인도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만주로 박승학을 찾아갔을 때 학교를 세우고자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는 애국 계몽주의자의 일면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인섭은 서양의 이기를 받아들여 동양정신을 잃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사상을 내면화하고 있다.<sup>91)</sup>

#### 4. 결론

지금까지 『달과 칼』과 『먼동』을 주요 연구 텍스트로 삼고, 『남과 북』을 보조 연구 텍스트로 삼아 홍성원의 역사소설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달과 칼』, 『먼동』, 『남과 북』, 임진왜란 이후 우리 근대사의 사회 역사적 변동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들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그리기에 적절한 문학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균등한 화소의 배열, 평범한 인물의 전경화, 목소리의 독립적 병치이다. 이러한 소설 양식은 홍성원의 첫 대하소설인 『남과 북』에서 확립되었고, 『달과 칼』, 『먼동』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며 적용된다. 가령 목소리의 독립적 병치는 『먼동』과 같은 상충되는 견해나 의식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먼동』은 인물들 사이에 드러나는 역사의식의 차이를 예리하게 드러내는 반면, 『달과 칼』의 경우 대체로 객관 서술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홍성원의 대하역사소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리 역사의 근대적 변화의 양상을 그리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회 경제 구조는 현저한 변동을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 소설들은 이러한 과정을 문학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들 소설에서 이러한 변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양반 중심의 계급 제도의 균열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제도의 변화이다. 전자가 핵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종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지만, 특히 보경과 인섭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무엇보다 보경의 근대화의 모델은 현재의 일본이다. 그녀는 송근술처럼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수용한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그녀는 당위적 윤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 사고로 진실을 추구해

91) 이런 점에서 그의 정신은 멀리는 박지원 박제가 등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실사구시 사상에 닿아 있으며, 가까이 김윤식, 김홍집 등으로 대표되는 온건개화파의 개화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그는 개화당이나 독립당과 같은 파당에 대해서도 초월해 있다. 근본적으로 근대적 합리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근대인의 면모를 보인다. 그는 『달과 칼』의 성기준의 후예이다.

나간다. 그의 의식이 완결되는 지점은 미래에 있다. 인섭은 그는 홍화학교에서 신학문의 기초를 익히고, 경성의학교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하여 광제원의 양의원이 된다. 보경이 그렇듯이 그는 당위적 윤리를 좇지 않는다. 그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한다. 그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꾀하는 근대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홍성원, 『달과 칼』, 신서원, 2005.
- 홍성원, 『먼동』, 문학과지성사, 1993.
- 홍성원, 『남과 북』, 문학과지성사, 2000.
- 홍성원, 「水賊」, 『서울신문』, 서울신문사, 1991. 4. 1-1992. 9. 28.
- 홍성원, 「동트기 직전 새벽은 더 어둡다-연재소설 『먼동』 대장정을 마치며」,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91. 2. 28.
- 홍성원·홍정선, 「대담-자신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그러나'라는 질문」, 『홍성원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3.
- 이광훈, 「조직의 힘과 개인의 해체」, 『문예중앙』, 1982, 가을호.
- 김병익, 「진실의 발견과 장인정신」, 『현대문학』, 1994. 11.
- 오탁번·이남호, 「플롯의 사건과 배열」,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강만길, 「이조후기 상업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1978.
- 대한민국예술원 편찬위원회, 『한국 무용 연극 영화 사전』, 예술원, 1985.
-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이영옥 역, 거름, 1987.
- 제라르 쥬네트, 「초점화」, 『서사담론』, 권택영 역, 교보문고, 1992.

<부록>

「문학의 해」 특별기획, 작가의 편지  
『먼동』의 의병장 박승학 장군에게 / 홍성원

조국이 식민지로 변한 통한의 시기  
당신들 인고가 우리를 있게 했소.

영서 의병장 박승학 장군.

장군의 거처와 가까운 수원 팔달문(남문) 다락집 지붕 위에 화사한 4월의 봄 햇살이 지금 한창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소. 수원이 무대가 된 작품 「먼동」에서 장군과 내가 첫 만남의 인연을 맺은 것은, 나의 가파른 유년 시절을 아름다운 정서로 가꾸어준 수원 고을의 정겨운 인심과 빼어난 풍광의 덕인 것 같소. 수원은 서울에 인접한 역사가 오랜 깔끔한 고을이며, 후기 조선시대의 성문과 성곽이 여러 차례의 전란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아남은 한국의 몇 안 되는 고풍스런 성곽 도시요, 특히 정조대왕이 비명에 돌아간 선왕 장조(사도세자)의 능을 찾아 자주 화산으로 여행을 가곤해서 세상에서는 그 효행을 높이 우러러 효은의 고을로 칭송하기도 하오.

그러나 작품 『먼동』이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내가 그토록 자주 보고 듣고 해서 이제는 내 몸의 일부처럼 스스럼없이 되어버린 낮익은 수원 고을과, 그 고을에 어울려 사는 박가 김가 송가 등의 백성들이 정겹게 주고받던 경기도 남녘 지방의 구수한 사투리가, 내 잠자던 감성과 정서를 흔들어 깨워 사납게 창작 욕구를 충동한 때문이오. 그 부추김과 들썩임에 쫓겨 한쪽 구텡이로 웅색하게 몰린 내가 더 물러날 곳이 없어 엉겁결에 손을 댈 작품이 내 고향 수원과 남양을 아우르는 김 씨 박 씨 송 씨 세 집안의 옛 이야기 「먼동」으로 태어난 것이오.

박장군, 그러나 당신은 참으로 불행하고도 행복한 시대를 살다 가신 분인 것 같소. 당신이 불행했던 이유는 당신이 살던 시대가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통한과 울분의 시대였기 때문이오. 장부에게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또 있겠소. 그래서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스산한 싸움임을 잘 알면서도 분연히 몸을 추스려 일어나 저 사나운 왜적들과 처절하게 싸우셨던 게요.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은 다시 없이 행복했던 분이었소. 당신에게는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가 분명했고 그 적들과 왜 싸워야 되는지가 명확했기 때문이오. 지금은 그러나 옳고 그름이 뒤섞이고 거짓과 참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당신이 살았던 세월보다 훨씬 난해하고 복잡한 세상이 되어 버렸소. 조국만 되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노라고 생각했던 그 조국이, 부끄럽게도 지금은 둘로 갈라져 남과 북이 총부리를 마주

한 채 반세기 가까이 서로 모질게 미움들을 키우고 있소. 이 분명치 않은 적과 석연치 않은 싸움의 이유를 아마 옛 시대를 살았던 장군은 결코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것이오.

격랑의 시대에 휩쓸린 개인의 작은 삶들은 왜 그리도 안타깝고 가여우며 애잔한지 모르겠소. 아름다운 갯마을 소녀 쌍순과 도도하던 김대감 맥 형제들. 그리고 노여움과 복수심으로 화로처럼 뜨겁던 송근술과 장군의 어진 조카인 박의원 인섭과 여러 의병장들... 그들의 고통스런 인고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고 그래서 나는 우리 후손들을 대신하여 박장군 당신을 빌려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소. 이상과 현실 사이를 힘겹게 조화시킨 박장군의 지적 궁행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교훈이자 사표로 우뚝하오.

저 거친 만주벌에 계신 장군의 근황이 궁금하오. 새삼스레 장군의 부동의 얼굴이 보고 싶소. 박장군, 건강하시고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오.

『동아일보』 1996, 4, 23. 26면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  
442-083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Tel. 031)244-2161~3 Fax.031)244-2164